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3+4
MAR + APR
2021 vol.11

특집

신앙과 괴리된 삶의 회복

사람 사이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담임목사

청년, 일터 이야기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

문화로 세상 보기 시대의 양심인 본회퍼의 삶

ISSN 2671-8731

03

Contents

MARCH + APRIL · 2021

시선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 : 정의, 자비, 신의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신앙과 괴리된 삶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 신국원 04

특집

신앙과 괴리된 삶의 회복

신앙과 괴리된 경제생활의 회복
: 본업과 부업을 제자리로 | 조성표 06

부동산 문제와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 남기업 08

법률과 직업 속의 이웃 사랑 :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변증법 | 이병주 10

대학 교육 현장에서 보는 신앙과 삶의 괴리 유형 | 이은실 12
부모가 된다는 것 | 김병재 14

사람 사이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담임목사 16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과학기술 | 장수영 20



2021. 3+4월호 | 제11호(통권 226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거절, 성령의 효과적 설득 강하은	22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누리는 삶 누클루 카방게 롤리	24
청년, 일터 이야기	
아들람 굴에서 함께 지어가는 삶 김송이	26
현실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삶 장재호	28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시대의 양심인 본회퍼의 삶 추태화	30
----------------------	----

미술을 보다

신앙과 삶의 거리 좁히기 - 전인으로서의 예술 활동 서성록	32
------------------------------------	----

책을 보다

인생의 궁극적 질문을 해 보았는가 박명룡	34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배덕만	36
성경적 세계관 강의 양성만	38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바라보기 : 복음주의적 삶의 해설서 김영한	40
세계관적 성경 읽기란 무엇인가? 최종원	42
혁명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치 행위 황영철	44

교회 路

충주 새로운교회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 김도형	46
인생의 황혼기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나다 이상기	47

온전한 지성

루터와 흑사병 주도홍	48
---------------	----

소식

사무국 소식	51
관련기관 소식	52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3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 : 정의, 자비, 신의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자의 8.8%는 교회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은 감염자 43.7%를 기독교 책임으로 돌린다. 좀 억울하지만 한국교회가 인심을 잃었음은 분명하다.

2세기 중반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확산되었을 때,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와 방역에 앞장서서 세상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지금 한국 최대 종교로 부상한 기독교는 전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 이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 왜? 흔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좋은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대다수는 예배 등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등 기도에 열심이고,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며, 헌금과 교회 봉사에 충실하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을까?

문제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소산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서 그런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안식일도 지키는 등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이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마 23:23)라고 심히 꾸짖으셨다. 이사야도 유다 백성들이 좋은 제물 많이 바치고 절기 잘 지키며 집회에도 열심이었지만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은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했다(사 1:10-17).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것을 매우 강조한 야고보도 혈벗고 굶는 형제에게 먹고 입으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은 주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다(약 2:14-17). 성경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믿음 실천은 의식적인 예배, 절기, 헌금 같은 것을 넘어서 정의, 자비, 신의와 같이 이웃 사랑에 충실한 것이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믿음 좋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게을리하고 예배, 십일조, 집회 같은 의식적인 것에 더 열심을 낼까? 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보다는 예배당 건축에 더 많이 헌금

할까? 예배, 기도, 성경공부에 보이는 정도로 정의, 자비, 신의에 열심을 내었다면 지금처럼 사회의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자주 제시되는 이유는 정의, 자비, 신의 같은 것들은 불신자들, 인본주의자들도 다 강조하는 것이므로 구태여 기독교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므로, 윤리니 사랑이니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지, 은혜로 구원받는 기본 교리에 어긋나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 동조자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핑계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의식(儀式) 중심의 신앙생활은 신본주의로 보는 것은 논리적 착각에서 비롯된다.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한국 사람이라 해서 모두 제주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은 모두 한국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행함은 의식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주는 사랑의 행위다.

흥미로운 것은 불교나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들도 타락하면 의식 위주, 윤리 무시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테러를 일삼는 무슬림도 예배에는 철저하고, 심히 부패한 미얀마 권력자들도 절을 짓고 부처에 금딱지 붙이는 것에는 열성적이다. 소위 '수직적인 관

계'에 전력하고 '수평적인 관계'는 무시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받기 위하여 바친다"(Do ut des)는 기복신앙적 이기주의가 작용한다.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전능한 신에게 직접 바쳐야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형식적인 준법보다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의 사랑을 이웃에게, 특히 그가 사랑하시는 약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예배, 찬송, 기도, 전도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삼상 15:22). 그런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이웃 사랑이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한 마디 말씀에 다 들어있다(갈 5:14). 그리고 믿음에 입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

'코로나 19'가 수많은 사람에게 가하고 있는 그 엄청난 불편, 고통, 절망을 고려하면 감염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요 믿음의 실천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96년 도산인상,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2018년 서울대 사회봉사상 수상.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신앙과 괴리된 삶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호 <신앙과 삶>의 주제는 '신앙과 괴리된 삶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문제는 일상의 실천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속에 그 괴리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보며 <시선>은 왜 그런지를 묻습니다. 의식(儀式) 위주의 신앙이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형식적 준법보다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붙잡기를 권고했고요. 특히 팬데믹으로 모두가 고통을 받는 지금 감염을 줄이려 애쓰는 노력이 신앙의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특집 글' 첫 꼭지는 조성표 교수님의 바른 경제생활 회복을 위한 제언입니다. 주식 열풍으로 인한 본업과 부업의 역전이라는 기현상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남기업 소장님은 정의롭지 못한 부동산의 소유와 투기는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희년의 정신에 기초해 투기가 불필요한 정의로운 경제 제도 수립을 제안합니다. 이병주 변호사님은 '민법'이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양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에는 이웃 사랑을 위한 자기 사랑이 가능함을 아는 것이 필요함도 강조하고요. 둘째와 셋째를 입양한 김병재 선생님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어떻게 '부모 됨'을 회복할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은실 교수님은 교육 현장에서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의

이유와 극복의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민용 총무님이 만난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은 '코로나 19' 상황을 '계시적 사건'이라며 삶의 방식을 돌아볼 것을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의 약화는 낮은 자리에서 백성의 아픔을 함께하고 섬김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이 명사가 아니라 생활로 동사화되어야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앙교육이 이중적 자아를 만들어내도록 구조화된 측면도 지적합니다. 구도자적 자세는 목회자뿐 아니라 지성인도 갖추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 세상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유지하기를 주문합니다.

<섬김의 자리> 장수영 교수님의 글은 불신 가정에서 자라 지금까지 이른 간증입니다. 독재에 맞선 교회의 고상함에 끌려 유학 시절 찬송과 성경 공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신앙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정기술'이라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강하은 형제는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QT와 신앙공동체의 격려를 통해 이겨내는 경험을 나눕니다. 콩고 유학생인 롤리(Rolly) 형제는 경북대 박사 후 전문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유학 생활과 현재 밀양 일터에서 경험한 은혜 체험을 들려주고요. 청소년 상담 치료사 김송이 자매는 자신이 겪은 방황과 하나님을 통한 치유의 경험을 어려움 겪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여 깨어진 삶들을 돌보는 꿈을 꾸니다. 공동체 '모로뷰'의 장재호 대표는 글, 그림, 영상의 재능으로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서는 추태화 교수님이 난세에 신앙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준 〈본체퍼〉를 소개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히틀러 암살 기도인 발키리 작전에 가담한 사실도 주목하게 해주지요. 〈미술을 보다〉의 서성록 교수님은 예술 세계에서 신앙과 삶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애쓴 전인적 예술 활동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로 복한 인권 실태를 알려 우리의 동참을 호소한 〈고통받는 땅아〉를 소개합니다.

〈책을 보다〉에서는 동역회 회원의 근간 저서를 소개합니다. 김성원 교수님의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는 변증가로 활동하는 박명룡 목사님이, 편집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는 이상민 박사님의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는 배덕만 교수님이, 최용준 교수님의 〈성경적 세계관 강의〉는 양성만 교수님이, 김종걸 교수님의 〈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거니〉는 은사이신 김영한 교수님이, 전성민 교수님의 〈세계관적 성경 읽기〉는 동료이신 최종원 교수님이 서평을 해주셨습니다. 황영철 목사님은 지난 호에 이어서 프린스터러리의 〈혁명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치 행위〉를 소개합니다.

〈교회 路〉에서는 충주 새로운 교회의 김도형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관을 목회의 기초로 삼는 독특한 사

역을 소개합니다. 특히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를 통해 어르신들께도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이상기 장로님의 참여 소감문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안목 변화와 신앙과 삶의 일치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기에 이 흐름이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흑사병의 만연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주도홍 교수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남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환란 중에 이웃을 섬김에서 원편 죄와 오른편 죄, 즉 돌봄의 방기와 용기 있는 척하는 만용을 경계했다는 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끝으로 미얀마 군부 구테타에 항거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시민들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실었습니다. 이사 전원, 실행위원과 학회 임원, 그리고 회원 모두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이기에 그들의 민주화 노력에 동참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도 한결같은 헌신으로 인터뷰와 글을 써주신 분들과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FAITH & LIFE**



✍ 글쓴이 신숙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신앙과 괴리된 경제생활의 회복 : 본업과 부업을 제자리로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동역회 이사)



“교수님, 일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팬클럽은 대학에 교수로 취업한 제자가 하는 말이다.
놀라서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학 마치고 일찍 취업
했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요새 집값이 몇억 원 올랐다고 하고, 주식에서 대박
이 났다고 하는데, 제 월급을 바라보면 초라하기 그
지없습니다.” 참 할 말이 없었다.

최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 정부 출범한 2017년
1월에 6억 40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2021년 1
월에는 11억 4000만 원으로 5억 원이나 올라, 7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
는 노동자가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에너지경제신문, 2021.03.03)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경실련은 노동자와 유주택자
의 재산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
까지 노동자 평균임금과 아파트값의 상승률도 비교
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은 2년간 연평균 132만 원 오

른 반면, 같은 기간 99.17m² 규모의 아파트값은 연평
균 약 1억 3000만 원씩 올라, 약 100배의 차이가 났
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노동자가 1년에 천만 원
을 저축한다면, 집값 상승액 5억은 50년 저축을 하
여야 하는 액수로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간에는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중앙일
보, 2021.03.03.)

그래서 그렇지, 요즘은 인터넷에서는 본업인 직장
이 중요한지, 부업인 투자가 중요한지 논쟁이 한창이다.
이전에는 당연히 본업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
업이 재편,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한 실직과 연봉 삭
감 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난에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각종 부업
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선호하는 부업으로 손
꼽히는 분야로서 주식 등 투자를 들고 있는 주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아파트와 주식의 상승에 따른 상실감은 무주택

자, 무투자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아파트나 주식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그만 만족하고 손을 털고 나올 수 있을까?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유명한 한 글로벌 기업에서조차도 아침 9시 화장실에 자리를 잡기가 힘들다고 한다. 출근하여 너도나도 화장실에 숨어 주식 매매 신청을 하느라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월급 받아 봤자 세금 떼면 얼마라고, 부동산이 1년 사이에 몇억이 올랐고, 테슬라가 몇백 프로 올랐는데 말야!”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니, 본업보다는 부업에 신경이 쏠리게 되어, 대박의 맛을 본 사람도 본업에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업에서의 소득이 적다고 가치가 적은 것인가?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은행에서 이자로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 이자율을 연 2%라고 한다면 무려 18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업에서의 고정적인 소득의 자산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것뿐만아, 4대 보험 등 복지적 혜택도 많으며, 직장이 주는 사회적 지위나 학습 효과 등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본업에서의 소득은 일시적인 투자이익과 달리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특성이 있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렇기에 큰돈을 벌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부업인 투자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본업을 소홀하게 되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본업과 투자는 각자의 영역이 있으며,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하여 몇 가지를 조언을 적어 본다.

첫째, 내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사람이 주식을 사고 조마조마 애를 끓이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이다. 보수적인 사람은 안전한 투자를, 적극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한다.

둘째, 투자는 ‘여윌돈’으로 한다. ‘여윌돈’이라 함은 투자에 실패하여도 나와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돈이다. 차입 투자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투자이다. 갭투자도 차입 투자의 일종이다.

셋째, 투자 대안을 생각할 때는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할 때는 10배 오른다는 낙관적인 전망만을 바라보며 투자한다. 그러나 가장 큰 손실이 난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입 투자로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를 멈추어야 한다.

넷째, 투자를 나누어서 분산시켜라. 분산 투자의 반대는 ‘몰빵 투자’이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라도 전 자산을 쏟아붓는 것은 위험하다.

위의 네 가지는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기본 원칙을 모두 지키더라도 투자는 부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투자가 본업에 몰두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든지, 조정이 어렵다면 투자를 바로 멈추어야 한다. 본업은 경제적으로도 일시적인 투자 수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준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언 22:29) **FAITH & LIFE**



글쓴이 조성표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 회계이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를 연구하였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한국 회계학회 회장, 한국 경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돈 걱정 없는 가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행복한 가정생활> 등이 있고,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대구 성덕교회 장로로도 섬기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남기업 (토지 + 자유 연구소 소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거룩한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토라)과 신약의 말씀은 다 이것을 향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몰아야 한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신앙과 삶의 괴리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에 ‘고무’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나라가 명확하지 않으니 각자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것도 매우 열심히 말이다. 잘못된 열심과 확신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과 같은 끔찍한 재앙이 밀어닥친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신앙에는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회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하고 있는 회년이 구약에 말하는 거룩한 나라이고,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회년 선포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다(눅 4:18-19). 회년은 어떤 사회인가? 문자에

엄매이지 말고 회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보면 ‘관계의 회복’임을 알게 된다. 회년 선포를 대속죄일에 행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회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회년에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에서 회년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그리고 회년에 경작을 쉬었다는 것에서 회년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편 회년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에게 7일에 하루를 쉬게 한 것은 개인의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긴급 조치다. 7년에 1번씩 부채를 탕감하고 종을 해방하는 것 또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주인과 종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인 회년이 되면 어쩔 수 없어서 팔아버린 토지를 되돌려 받는 것은, 지주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된 소작인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고 종속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년으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사회 전체를 통찰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교회의 현주소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 안에서 분업과

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나는 회년에서 토지에 관한 가르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특히 강조한다. 신분과 부채에서 해방되어도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토지를 소수가 독차지하고 있고, 40%에 가까운 세대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가 토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다. 성경의 정신에서 멀어진 토지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낳고 그것이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으로 소득을 누리는 부동산 투기라는 경제행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내가 하는 부동산 투기가 생산적 경제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인지를. 그런데 부동산을 아무리 열심히 알아보려 다녀도 GDP는 1도 증가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행위는 집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생산에 기여하고 번 돈이 아니므로 본질상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 니콜라당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니콜라당은 당시 황제숭배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제숭배에 참여해야 도장도 받고 그래야 상거래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금했다. 경제적으로 손해인데도 말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태도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해를 보면서 견뎌야 하나? 아니다. 회년의 제도화에 힘써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불필요한 정의로운 경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이웃을 괴롭히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무주택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제도, 회년의 정신을 담은 제도를 구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회년을 묵상하면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진다. 기준이 확고해지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뜻대가 명확해진다. 파편화된 현실의 조각들을 하나의 전체적 문맥 속에서, 총체성 속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삶과 신앙의 괴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FAITH & LIFE



글쓴이 남기업



‘토지 + 자유 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이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논문 〈헨리 조지의 대안적 경제체제 연구 : 소유의 정당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친화성에 관한 비교 검토〉(2005)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회장(2007-2010)을 역임했고, 현재 ‘회년함께’ 공동대표(2010~)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 〈아파트 민주주의〉(이상복스), 〈헨리조지와 지대개혁〉(경북대출판부, 공저), 〈회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홍성사, 공저) 등이 있다.

법률과 직업 속의 이웃 사랑 :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변증법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세상이 현실적으로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것은 세상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을 다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40)라는 ‘이중 대계명’을 명하신다.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되는 ‘자기 사랑’이라는 세 가지 사랑이 들어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이중 대계명’ 중 ‘하나님 사랑’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과 제도는 ‘이중 대계명’ 중 ‘이웃 사랑’, 즉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은 ‘민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민법을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다투는 이기주의적 욕망의 보장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 이 경우 민법

은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한 ‘자기 사랑’과 욕망의 세속적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지만, 모세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 이후 수천 년간 축적되고 체계화된 민법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의 선입관과는 달리, 민법 자체가 사람의 ‘자기 사랑’(물권법)과 ‘이웃 사랑’(채권법)을 양대 기둥으로 하여,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간의 ‘갈등과 협력’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민법의 ‘물권법’(物權法)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확보해서 나와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사랑’의 기본 방법을 제시하고 보장한다. 그런데, 민법의 ‘채권법’(債權法)은 사람들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웃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이웃 사랑’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니 민법 중 물권법은 자기 사랑의 법이요, 채권법은 이웃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의 민법은 “인간이 자기 사랑의 추구(물권법적)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이웃

사랑의 행위(채권법적)를 해야만 한다”라는 인간 생활의 기묘한 모순적 본질을 뚜렷하게 제시(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이중 대계명’의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중요한 기능과 역할들이 함께 들어있다. 상품의 제조업과 유통업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하나님 사랑)의 (衣)와 식(食)과 주(住)를 제공해서 나의 생존(자기 사랑)과 이웃의 생존(이웃 사랑)을 함께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적 역할이 있다. 운송업, 의료업 등 서비스업 또한 타인을 도와서(이웃 사랑) 그 대가로 나와 가족을 먹여 살리는(자기 사랑),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종합체이다.

그 누구도 자기 사랑만 하고는 살 수 없지만,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다. 서비스업 종사자가 자기만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거꾸로 이웃만 사랑하고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가족이 먹고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직업 활동은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 자기 사랑과 자기 부인의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 있다.

대부분의 직업은 자기 사랑이 일차적 동기이고(소득과 생계), 자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으로 이웃 사랑의 행위(제조업과 서비스업)가 이차적으로 결합된다. 그러니, 각종 직업과 생계 활동을 긍정적인 선으로만 보는 것도 오해이고 부정적인 악으로만 보는 것도 오해이다. 직업의 목적은 성악설적인 자기 사랑이지만 직업의 수단은 성선설적인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업과 삶 속에서 자기 사랑의 폭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 속의 악을 알아야 하고,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짓고(자기 사랑), 교회에서는 나와 내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혼합), 여유가 있으면 구제의 자선을 행하는(부업적 이웃 사랑)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세상과 직업은 ‘자기 사랑’이 압도하는 영역으로 방치하고 ‘이웃 사랑’은 임의적인 선택과목처럼 취급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자기만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의 삶과 직업과 법 제도 속에 들어있는 이웃 사랑의 본질적 요소를 경시하거나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삶은 제도적으로 100% 이기적일 수가 없는데, 신앙을 통해 자기 사랑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도 조금 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사랑을 위해서는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자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큰 계명의 참으로 신비한 실천 방법이자 기독교 신앙의 오묘한 성육신이 아닌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된 기도를 행하려면, 우리의 구체적인 직업과 생계 활동을,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간에 계속되는 인생의 씨름들을, 우리 신앙 활동의 핵심적인 본체로서 인식하고 고민하며 실천해야만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이자 25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하버드대 법률전문대학원(LLM)을 졸업했다. 현재 평신도 대중단체 연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오크스: 육해야 사는 인간>, <육하는 기독교, 육먹는 기독교> (평신도의 발견 개정증보판), <박근혜시대와 기독교의 문제-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보는 신앙과 삶의 괴리 유형

이은실 (한동대 교육대학원 교수)



2021년 초 ‘코로나 19’ 시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탐구한 세미나가 있었다. 20, 30대 그리스도인 청년 7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성경적 삶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이 들어 있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라는 말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얼마나 동의했는지 정리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응답자 중 40.4%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어렵다고 했고, 61.7%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고 답하였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성경적 가르침과 현실의 삶 사이에 괴리를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성경적 삶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경향이라니 그래도 다행이다. 신앙과 삶의 괴리는 왜 일어날까. 기독교 대학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성인 초기의 청년들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신앙의 미성숙’이다. 신앙은 성장의 과정을

밋는다. 특히 성인 초기 청년들은 교회의 관습이나 의식을 따르고 권위자의 의견에 의존했던 단계에서 점차 스스로 말씀을 탐색하고 확인하며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성숙한 형태로 발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앙에 대한 의문과 갈등, 질문과 탐색이라는 과도기적 혼란을 경험한다. 신앙이 미성숙하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믿는지 명료하지 않고, 신앙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선택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부족하며, 따라서 이를 삶의 행위로 실천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잘 몰라서’다. 배우지 않아서 모르고 잘못 배워서 모른다. 특정 상황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과 행동에 대해 그리 관심도 없고 배울 기회도 부족하다. 그러니 자신이 맞닥뜨리는 삶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지 혼탁하다. 잘못 배우기도 한다. 교리적 믿음으로부터 윤리적 행위가 분리된 가르침, 믿음과 행위를 이원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도인

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개인적 영성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시민직'에 대해서는 관심도 책임도 옅다.

셋째는 '왜곡된 자아상' 때문이다. 이들은 제자도에 대한 헌신도 있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신앙과 삶이 연계되지 않는 이들에게서 '영적 자만'과 '영적 무기력'이라는 양면이 관찰된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높은 자아상을 가진 이들에게서 자신은 선과 악의 투쟁에서 선을 행한다는 '자기의'(自己義)가 작동하는 것을 본다. 선을 추구하는 강한 욕구는 선을 행하다가 마주치는 자신의 한계에 놀라고, 수치와 자괴감에 휩싸인다. 거대한 사회의 힘과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악에 눌려 '영적 무기력'에 놓인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나 아직 존재하는 죄성(罪性)을 인정하는 건강한 자아상과, 그래서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신앙과 삶의 괴리에서 오는 곤고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신앙이 미성숙한 이들에게는 성숙을 돕는 접근이 필요하다. 관습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에서 내면적인 신앙의 헌신으로 옮겨가는 과정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될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의외로 모태 신앙 출신이다. 이들은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지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 기독교를 알고 확인하고 변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독교 변증' 같은 과목은 이들에게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도 되겠다"라는 결단과 자신감을 키운다.

그리스도인의 '제자직'과 '시민직'을 연결하는 '세계 시민교육'도 도움이 된다. 기독교 '세계시민교육'은 예수님을 닮는 제자는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공동체적 소명과 정체성도 동시에 가지게 됨을

가르친다. 빈곤, 환경, 평화, 교육 등 다양한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고 문제해결과 회복을 위한 실천을 연습하면서 신앙과 삶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한 영적 자만이나 영적 무기력은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신앙 성숙의 여정을 거칠 때, '위기와 역경의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다. 인생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다양한 사고와 문화를 접하는 경험을 통해 신앙과 사람에 대한 인식이 성숙한다. 어쩌면 왜곡된 자아상으로 인해 경험하는 연약함은 오히려 자신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신앙의 눈을 제공하는 영적 멘토링이 제공되는 환경에서 말이다.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고 배우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는가. 위대한 신앙 위인들의 삶도 좋지만 세대 간에 나누는 신앙 이야기 역시 강력한 영적 멘토링의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성공담이 아닌 실패담, 왜곡되고 깨어진 자아의 경험, 그럼에도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신앙과 삶을 연결한 그런 이야기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은실

한동대 교육대학원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주임교수이다.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학부(B.A.), 시카고대 대학원 석사과정(M.A.), 하버드대 대학원 박사과정(Ed.D)을 졸업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이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신학과 학문>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김병재 (높은뜻씨앗스쿨 과학 교사)

사건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마주하기 어려웠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볼 용기도 없었다. 바이러스의 횡포 아래 보낸 한해의 막바지를, 우리는 소식을 접하고 그렇게 충격 속에서 보냈다. 500일 남짓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 한 채, 정인이는 그렇게 떠났다. 입양 가족을 소개하는 EBS 다큐멘터리, 거기서 보였던 정인이 입양 부모의 웃음을 떠올리니 손이 떨린다.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다. 작디작은 아이였다. 그래서 엉덩 부모의 뜨거운 사랑과 부드러운 보살핌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인이에겐 입양 부모의 차가운 방임과 무자비한 폭행만이 존재했다. 입양 전 짧은 기간, 위탁 가정의 따스함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양 부모에게 분노하며 정인이를 애도했다. 여기저기에서 '입양'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어떤 이들은 생부, 생모의 책임을 말하며 입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또 정인이와 같이 신생아 입양이 아닌 사후에 대한 특수성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 조사와 파악(罷養)을 언급했다. 이 일은 기독교에서 더 충격이 컸다. 정인의 입양 부모 모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그들이 공부한 학교 또한 기독교 대학이었다. 나는 한 사람의 그리

스도인으로서 절망했으며, 기독교 학교의 교육자로서 무기력을 느꼈고, 나아가 입양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다.

‘코로나 19’ 시대,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끊임없이 지탄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였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기독교는 시민 윤리를 넘어 인간 윤리의 기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정인이 사건을 ‘입양’이라는 특수한 관점으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를 ‘입양’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근본을 놓치게 된다. 중요한 건 ‘부모 됨’이다. 너무나 대책 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이 문제의 대책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으려 한다. 절망한 그리스도인과 힘이 빠진 기독교 교육자, 분노하는 입양 부모의 마음을 안고.

첫째, ‘부모 됨’은 기쁨이다. 기독교 신앙은 ‘양자 됨’을 통해 멸망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양자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다. 여기서 좀 더 나가보자. 자녀 된 ‘우리’에게 집중하다 보면 입양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는다.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내가 법정에서 둘째의 입양 확정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 셋째의 입양 확정 판결문을 받았을 때 더욱 확신했다. 자녀를 삼는다는 것

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었다. 이 아이가 이제 나의 아이라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나의 자녀라고 말이다. 유한한 나조차 이렇게 기쁘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겠는가.

둘째, 교회가 부모다. 나의 경우, 올바른 아버지상을 갖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나를 보살펴 주시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고민했다. 사실 교회가 부모라는 건 교회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유아세례를 통해 '교회의 자녀'가 된다. 유아세례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기독교의 신앙고백으로 양육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를 넘어 교회 전체가 약속하는 자리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개인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비엘레(André Biéler)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 밖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육도 마찬가지다. 자녀 양육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 부모들은 양육을 통해 실패와 좌절, 자괴감을 안는다. 그래서 교회는 '독박 육아'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 함께 교육하기로 약속했다면 교회가 함께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는 휴식할 수 있고, 자녀는 충분한 돌봄을 받는다. 또한 부모는 다른 부모들의 양육방식을 보고 배울 수도 있다. 만약 집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라면, 교회의 다른 어른들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들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상을 키워갈 수도 있다.

셋째, 다음 세대에게 '부모 됨'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서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다. 특히 진로교육이 그렇다. 진로(進路), 말 그대로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 삶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학교의 교육과정 전체는 진로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교의 '진로교육'은 파악한 학생의 성향과 능력을 통해 나중에 갖

게 될 '직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연 사람의 삶이 직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바친다. 취업 후 돈을 벌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결혼은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되긴 어렵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진로교육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 됨'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 진로교육이 아닐까. '부모 됨'의 교육과정이 존재한다는 건 공동체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며, 이는 명시적 교육과정 뿐 아니라 분위기 즉, 잠재적 교육과정이 된다.

우리 가정의 첫째는 배 아파 낳은 자녀이며, 둘째와 셋째는 입양을 했다. 세 자녀는 모두 나와 아내의 '친자녀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나의 아집이 아닌, 기독교가 말하는 '부모 됨'과 '자녀 됨' 때문이고, 함께 웃고 아파할 수 있는 교회와 입양가정 모임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교회여, '부모 됨'을 기억하자"라고. **FAITH & LIFE**

글쓴이 김병재



입양아의 부모로서 현재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가을, 선율, 노을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 ACTS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Ph.D) 중에 있다. 화성의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의 교육연구원, '높은뜻씨앗스쿨' 과학 강사, 기대연 정책위 연구팀으로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으로서 신학과 철학, 교육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대안교육>(ACTS교육연구소, 공저)이 있다.

신앙과 괴리된 삶의 회복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담임목사



일시& 장소 2021년 2월 25일(목), PM. 1:30 청파감리교회 | **인터뷰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

정리 & 사진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오민용 목사님, 한국교회는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김기석 우선 우리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서 있는 문명의 토대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허약한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시적 사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주기 위해 이런 병을 내렸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인간의 과도한 경제활동이 만들어 낸 생태 위기와 맞닿아있다고 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대부분 경제에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서 이 생태 위기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19’가 갑자기 ‘멈춤’ 신호처럼 다가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향해 왔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들에 근본적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를 향한 질문보다는 오

히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더 절실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문명사적 전환의 하나의 계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경제우선주의, 문화적 지향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하는 시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오민용 이 팬데믹 상황은 기독교로 하여금 예배를 둘러싼 논의와 도전에 직면시켰고, 그와중에 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 또는 제약 방침을 종교 탄압의 의미로 해석하고 우려하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기석 원칙적으로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가 본질에 더 맞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조차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어디서든 설 수 있을까 하는 고

민을 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하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 받들기 위한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무작정 모여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만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고 있는 다수 교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행여라도 교회가 감염의 매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예배자의 마음으로는 적절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했던 것이 마음의 예배 처소를 짓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면에 성전을 짓고, 그 마음속의 중심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가에 엎드려 하루 세 번씩 기도를 올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19’가 극복되면 대면 예배를 중심에 두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본질적인 예배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예배이며, 이를 위해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민용 한국 기독교는 초기에 비하면, 현재 교인 숫자나 부동산,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 등이 비할 수 없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은 오히려 크게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김기석 그 까닭은 한국 교회가 대단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낮은 자리 백성들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방향을 제

시하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외적으로 성장했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은 이미 교회가 권력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가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은 내가 고백하는 내용, 명사형이죠. 그런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동사화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각자가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고백하고 끝나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길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이는 십자가의 길이며,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 결국은 성육신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에는 ‘명사적 무신론자’도 있지만, ‘실천적 무신론자’가 더 많은 법이고,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민용 얼마 전 한국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인데요. 놀랍게도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부부가 ‘정통 교회’에서 줄곧 성장한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통 교회’라면 마땅히 그 말씀을 전하고 배웠을 텐데요.

김기석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신교회에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삶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에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내적 능력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너무나 부족한 신앙의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상 내 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덕성으로 극복해 가는 부단한

과정도 필요합니다.

정인이 사건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유난히 나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신앙의 구조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라는 것이지요. 그 태도들이 두 얼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든 가면을 쓰고 살지요. 어떤 가면이냐가 문제이지만, 저만 해도 목사란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릇이 오래되다 보면 가면이 자기 얼굴이 될 수 있어요. 변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걸맞은 삶의 내용이 될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현재 한국교회 신앙 교육은 너무나 이중적 자아를 만들어 내도록 구조화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민용 목사님, '신앙과 괴리된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지성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영역과 학문의 영역의 이원화라는 유혹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기석 신앙인은 결국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했지만, 그냥 목회자로 얘기해도 그렇지요.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구도자(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지역 교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라는 정체성 속에 구도자라는 정체성이 삼켜지도록 내 버려두지요. 더 이상 순례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서 합리적인 리더로서 특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결실이 얻어졌을 때,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으스대지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구도자로서의 정체성이지요. 이 정체성을 지성인들이 잘 붙잡는다면, 저는 '지성인'이라는 정체성과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절대로 분열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민용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 CBS의 <잘잘법: 잘 믿고 잘사는 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을 기타의 조율에 비유하시면서, **"나의 욕망을 '기준음'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기석 에덴 이후에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기본 정서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다는 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타자들이 적대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더 근원적으로는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장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꼭 붙들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나를 에워쌀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고 장벽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순간 타자는 내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타자의 고통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보람이란 건 자기중심적인 삶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자의 세계에 눈뜨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보람은 내 욕망이 아니라 더 큰 세계인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큰 세계 앞에 나를 개방하면서, 시냇물이 흐르다가 강으로 합류하고 바다로 합류하는 것처럼, 작은 나를 넘어서서 더 큰 세계 속에 합류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민용 목사님의 잘 알려진 저서 <청년 편지>(성서유니온, 201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목사님은 이 땅의 청년 세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신앙과 괴리된 삶'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김기석 참 난감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세대야말로 자기 부모 세대에 비해서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란 것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인간답고 품위 있게 살려면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해”라고 말할 때,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불행해진다고 하지요.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교양 있고 인간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난 그거 없어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더 자유로워집니다. 루쉰의 <아큐정전>에 나온 정신승리법을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정신승리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냥 장막 안에서 네 후손이 많아지게 할거라고 한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지요. 시선을 높은 데 두고 이런 데 내가 너무 연연하기에는 내 삶이 소중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서 조금은 더 당당하게 “난 괜찮아.”라고 해야겠지요. 이런 마음이 청년의 때에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민용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라는 ‘뉴노멀 시대’의 도전과 점증해 가는 ‘기독교의 게토화’라는 이중고를 현재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기석 시리아 작가 자카리아 타메르의 <열 번째 날의 호랑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의미심장해요. 어느

날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포수에게 잡혀 와요. 쇠창살에 갇힙니다. 호랑이는 숲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쇠창살을 이로 뜯으면서 날 놓아달라고 얘기하는데, 포수는 빙그레 웃으면서 “결국은 내 말을 듣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 먹을 게 있거든”이라고 말해요. 며칠이 지났어요. 호랑이가 “먹을 걸 줘”라고 하자, 포수는 “고양이처럼 야옹 하고 울면 먹을 걸 주지”라고 해요. 호랑이는 “내가 호랑이인데 어떻게 고양이처럼 울어”라고 하면서 거절해요.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째 되는 날 호랑이가 “먹을 걸 줘”라고 하니, 포수는 고양이처럼 울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옹야옹” 했는데, 먹을 걸 또 안 줍니다. 그러면서 포수는 당나귀처럼 “히힃” 하고 울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것은 차마 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다가, 배가 고프 나머지 당나귀처럼 “히힃히힃” 하고 우는데, 그러자 포수가 살코기가 아닌 건초더미를 던져줘요. 그는 더 이상 호랑이가 아니라 당나귀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적어도 나는 세상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건 어떨 때 가능하냐면 작은 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내면의 능력이 생겨날 때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지죠. 힘겨운 건 사실입니다. 힘겹지만, 그래도 자기가 호랑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FAITH & LIFE**

하나님 나라와 과학기술

장수영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나의 아버님은 차례와 제사를 지극 정성으로 채기셨고 어머니는 무당 굿에서 영적 위안을 찾으시는 분이셨다. 이런 분위기 탓에 어려서부터 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이다 싶어 기독교는 꺼려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의 세계는 제사나 굿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상함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모교 연세대학교의 교훈은 과학이 진리라 생각하던 물리학과 학생인 나에게 “도대체 기독교 진리는 어떤 것이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지?”라는 의문을 갖게 했다. 그러면서 나는 군부독재에 자유를 빼앗겨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다고 나를 속이며 비겁하게 살고 있었다. 그 비겁함이 부끄러웠던 나는 독재에 맞서던 교회 그리고 그 용감함의 이유라는 십자가의 고상함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고상함에 매혹될수록 나는 더욱 부끄러웠다. 사실,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 것도 그 부끄러움이 지워준 빛을 갠아보겠다는, 지금 생각하면 실소가 나올 만큼 나이에 안 어울리는, 기특한 동기에서였다.

미시간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하던 중 갑자기 내게 들이닥친 ‘찬송가 부르고 싶은 갈증’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저 주께서 “너 노래 좋아하지?”라고 꼬신 것 아닌가 싶다. 그렇게 찾아간 앤아버 한인 성서교회에서 나는 송인규 목사님을 만난다. 우리나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한 축을 이루어 오신 송 목사님을 만나 초신자에서 성경공부 인도자로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이제는 하나가 되었지만, 당시 막 시작된 ‘기독교학문 연구회’와 ‘기독교 대학 설립 동역회’ 두 단체의 소식을 멀리서 듣고 가슴 두근거렸다. 코스타를 몇 번 참석하고 기독교 세계관 서적들을 읽으며 조금씩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깊은 매력으로, 또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내게 다가왔다. 유학의 이유였던 마음의 빛을 갠 길도 어찌면 기독교 세계관 공부와 실천을 통해 열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공학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지?”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졸업 후 1년 간의 크렘슨대학교 교수 생활을 거쳐 포항공대에 오게 되면서, 나는 “공학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자”라는 숙제를 여전히 손에

들고 귀국한다.

포항공대에서는 더 많은 논문, 더 큰 연구비, 더 빠른 진급의 추구가 내 삶의 리듬을 빠르게 재촉했다. “주님, 어서어서 진급해야 주님 일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며 자꾸 늦어지는 진급에 애를 태우며 지냈다. 그러다가 홀연히 닥친 정교수 진급을 마치던 날, 주께 감사 기도를 올리던 나는 화들짝 놀란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려 놓겠더니, 진급이 그리도 걸리던?” 나는 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벗어버린 줄 알았던 오래전 부끄러움의 짐을 다시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 경험 전후 즈음에 참여한 ‘크리스찬과학기술포럼’에서 나아갈 길을 찾던 중 나는 ‘적정기술’을 만난다. 적정기술을 성경이 말하는 “과부와 고아를 위한” 기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전파했다. 또한 적정기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추구해볼 만한 것인지를 일반인들에게도 전파하고자 ‘나눔과학기술’,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적정기술학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적정기술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공학 분야에서 드러내는 일이라 나는 굳게 믿는다. 이 일을 위해 사기업은 ‘CSR’(기업사회책임)과 ‘CSV’(공유가치창출)에 매진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ODA’(공적원조) 분야에서 ‘착한 기술’, ‘따뜻한 기술’, ‘회복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오래전 부끄러움 가운데 진 빛을 조금씩 갠고 있는 심정이다.

성경에 쓰여진 바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학 기술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 질문은 이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다. 웨슬리 선교사님 소개로 만난 손화철 박사님을 통해 입문하게 된 기술철학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 기술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기술신학도 새로 접하게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과학 기술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그려보진 못했지만 몇 가지 힌트는 찾은 것 같다. 기술은 스스로 말미암으시는, 곧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땅을 경작하는 농업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유를 성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타락 전 에덴동산에서처럼 우리는 경작할 것이다.

요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오픈소스’ 기술과 ‘리빙랩’에 갖게 되는 나의 관심도 사실은 모두가 땅을 경작할 것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을 나누는 모습은 이 땅에서 이루어 보기 위해 노력해 볼 만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이라 생각한다. 물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모습을 어찌 우리가 이루어 내겠는가? 그저 그날에 우리 기쁨이 크기 위해 마땅히 가질 목마름을 우리 안에 온전히 가꾸어 보려는 것 뿐이리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FAITH & LIFE



글쓴이 장수영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다. 연세대 물리학과 학부, 미시간대 대학원 박사(Ph.D)에서 공부하였고,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을 독려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포항 기쁨의 교회 안수집사, (사)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거절, 성령의 효과적 설득

강하은 (미국 MIT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사방이 막혔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일까. 보스턴 유학 1-2년 차, 나는 들어가고 싶던 연구실들에 연이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좌절했다. 소속 연구실이 없어도 학교 등록금은 내야 했고 조교 일까지 하게 되니 시간에 쫓겨 비좁은 강의실에 쏙그려 누워 자야 했던 날들. 긴장한 탓에 바나나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어서 구토를 했고, 그 와중에도 연구실 후보생 발표 시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에 미소를 장착하고 들어가 나를 어떻게든 증명해내려고 애쓰며 토론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설레는 꿈을 안고 떠난 유학인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슬펐다. 성실, 끈기, 열정, 인맥 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도 교수님과 미팅을 했다는 학생들이 부러웠고, 연구실 동료와 수다를 떠는 학생이 부러웠다. 학생 비자로 유학을 왔는데 소속된 곳이 없으니 허망하고 외롭고, 또 두려웠다. 돌아보면 나는 지금껏 힘든 상황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유년 시절 캐나다에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도 활기찬 성격으로 축구를 하며 동급생들의 인기를 얻어 이겨냈고, 고등학교 입시 시절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도 독하게 공부해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끝낼 또 다른 길을 찾아 그 자리를 떠났던 셈이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이러한 감각을 ‘회복

탄력성’이라 부른다.

우리의 이 ‘회복 탄력성’이 때로는 주님과와의 만남을 늦추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보스턴에서 사방이 막힌 환경을 통해 나의 전적인 무능과 이런 내 삶의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고난 중에 말씀을 따라 좁은 길 걸으신 예수님과는 달리 편한 길만 걸으려 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예수님이 한 사람 영혼에 관심을 보이며 섬기실 때 나는 내 생각만 하며 걱정애 젖어 사는 삶, 성령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지금 이 고난의 순간 내게 남은 카드는 무엇인지 머리부터 돌려보는 삶. 그러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헬스장에서 기분 전환을 하고 “좋다, 스트레스 풀린다” 하며 뿌듯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포인트를 놓친 삶.

짧았다. 사방이 막힌 밤. 바로 그 캄캄한 밤에 주님은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저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땅을 환상 중에 보게 하셨다. 왜 이 비전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에 가야만 보이는 걸까. 우리는 왜 자꾸만 고난 중에 회복만 꿈꾸며 나와 내 주변의 늦춰지는 구원은 생각 못 하고 나만의 욕심에 갇혀 사는 걸까. 같은 밤도 이렇게 다른 밤일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다 무너질 때까지 이토록 기다리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행사가 아닌 예배, 다수가 아닌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라는 답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감졌던 두 눈을 번쩍 뜨고 내 믿음의 처참한 현주소를 직시하며 그간 구원을 늦추며 몽그적거렸던 삶에서 돌이켜, 내 삶에 허락하신 한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열심히만 살던 똑똑한 바보의 삶에서, 방향이 분명한 '단순하고 깊은'(simple and deep) 삶으로의 전환이었다. 이 최소한의 순종은 하지 않고 자꾸만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는 나의 이 '오픈' 귀소본능을 버리기로 했고, 내가 마련한 피난처에서 안전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기로 했다.

들쭉날쭉,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나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큐티와 공동체였다. 매일의 말씀으로 내 욕심을 가지치기하고, 중한 일을 급한 일들로부터 분별해내어, 날 기다리는 한 사람(친구, 가족, 지체, 연인)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며, 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거절의 복을 누리는 삶임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작년 1월, 정말 기적처럼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기간도 딱 맞아떨어져 '우리들교회'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신음하는 유학생들을 기도 중에 생생히 보여주셨다. 주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사라진 채, 실적과 성과로 평가받는 유학지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방황하는 내 주위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셨다. 모두 종류만 다를 뿐 상황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때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갑자기 카톡이 왔고, 요새 힘들다며 서울대 & MIT 엘리트 동생들이 전화를 해왔다. 그렇게 보스턴 유학생분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귀국하신 분들과 'QTin'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 말씀 묵상하는 모임을 한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간다. 나의 마케도니아는 바로 이곳이다.

우리는 무능의 순간에 좌절하지만, 바로 사방이 막힌 이 환경에서 주님의 숨겨진 의지를 발견하게 되는가 보다. 주님의 관심은 고난의 끝을 알리시는 데 있기 보다 그 가운데 나를 만나 효과적인 설득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시선을 돌려 동역자들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에 있나 보다. 용기도 외롭지 않아야 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외롭지 않고 기쁘다. 성령의 효과적 설득에 이끌려 예수님이 걸으신 좁고도 기쁜 길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남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껏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늘 눈물로 애통히 기도하시며 모두가 살아가는 사역에 힘써 주시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담임목사님과 우리들교회 공동체, 감사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강하은

현재 미국 MIT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제조업의 데이터 공유 경제의 실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한다. '우리들교회' 청년부 목자로 섬기다 지금은 보스턴에서 유학생 큐티 모임을 작게 꾸려 김양재 목사의 큐티 교재 'QTin'으로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누리는 삶

누클루 카방게 톨리 (국립식량과학원 전문연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셨다(롬 6:23, 요 3:12).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엡 3:12). 누구든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다(롬 10:9).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하신 긍휼과 끝없는 사랑 안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역하는 자로 택하고 부르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롬 8:17; 엡 1:11).

나는 모국 콩고민주공화국의 루뎀바시(UNILU)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상급 학위과정의 꿈을 갖고 기도했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하셨다. 내가 2015년 한국의 경북대학교에서 농업 석사과정을 밟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물론 내가 한국에 오기 전, 많은 질문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한 까닭이다. 또 고국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기에 마음이 어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때도 한국으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은 내가 다소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매우 큰 환영을 받게 하셨다. 시간이 지날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친절히 대해주었고 상황도 한결 나아졌다.

지난 나의 한국 유학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처음 세웠던 계획들과는 달랐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지도 교수님의 적절한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선임 또는 동료 연구원들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어 내시는 분임을 경험했다(사 55:11).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고, 그 계획은 나를 풍요롭게 하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미래를 예비하고 계셨다(렘 29:11). 석사 학위 후, 하나님은 내게 또 새 길을 열어 주셨다. 석사 학위를 마치기도 전에 박사 학위 과정을 허락하셨다. 나는 점점 더 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애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나와 우리 가정은 석사와 박사과정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맑은 정신으로 늘 깨어있기를 권하

고 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벧전 5:8). 세상과 사회 조직과 경제 등의 영역에서 지식과 권력을 쌓고자 하는 세상적 욕망이 인간에게 있음을 아는 마귀는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추구하도록 속인다(계 12:9; 요 8:43~45).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성취와 능력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창 3:1~5). 나도 학업 중에 여러 번 두려움과 의심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셨다(렘 29:12~13).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전심으로 찬송하게 하셨다(시 111:10).

나는 하나님의 지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은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전 7:8)라는 말씀을 진리로 경험했다. 누가 내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이제 다음에는 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나는 성경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다.

내가 이 낯선 이국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초기에 어느 교회로 출석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경북대학교교회(KNU Christian Center)로 오기 전, 대구의 몇 교회를 먼저 방문했던 적이 있다. 현재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즐겁다. 또한 이상욱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우리 가족을 풍성하게 축복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하

다(빌 1:19).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언제나 친절과 사랑과 관심을 우리 가정에 보여주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주는 분이다(창 22:14). 피난처이자 힘이 되시는 분이다(시 46:1~6).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늘 동행하심을 믿는다. 현재 나는 박사 후 전문연구원으로 밀양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보여주시며 그의 오른손이 나의 연구와 가정에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미래도 믿고 선포하는 바이다(롬 8:28; 시 126:3). 앞으로도 순종(삼상 15:22~23)과 회개(시 51:1~7)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는다.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올려드린다(잠 9:10). 이 글 역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누클루 카방게 롤리
(Nkulu Kabange Rolly)



밀양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전문연구원이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Lubumbashi(UNILU)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경북대학교 석사과정에 유학을 왔다. 경북대 식물생명과학 박사과정(Ph.D)을 졸업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교회 청년이다.

아들람 굴에서 함께 지어가는 삶

김송이 (서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치료사)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나는 대학교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멈추지 않았다. 대학을 다닐 때 내 꿈은 빨리 졸업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였다. 바랬던 대로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구해본 적이 없었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허무함과 공허함이 반복되었다. 나의 방향은 몇 년간 지속되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 가장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상처로 여겼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방황과 어머니의 아픔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처가 열등감이 되었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사람으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마음에 일어났다. 더 이상 성경은 책이 아닌 나의 연약한 삶에 길잡이가 되었고, 나는 그렇게 ‘기독교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나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상처가 지체들을 돌보는 치유의 섬김이 된다는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의 말을 만나는 이들과 함

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가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사무엘상22장 1-2절)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들람 굴에서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과 함께 삶을 지어갔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자녀가 되길 기도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로 내 삶을 인도하셨다. 기도할 때 뜨거웠던 마음은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며, 헤집어 놓을 때가 많았다. 원망의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마음을 지켜 나가는 일이 힘이 들 때도 있었고, 역전이(countertransference)¹⁾가 일어나서 마음이 복잡해진 시간도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1.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는 치료자의 감정을 환자에게 전한거나 환자와의 감정이 얽힌 치료자의 상태를 말한다.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 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헨리 나우웬, <돌봄의 영성> 중에서).

스캇 펙(Morgan Scott Peck)의 <아직도 가야할 길>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게도 아둘람 굴은 아직도 가고 싶은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내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고통의 현장에 잠잠히 함께 머물 수 있길 늘 기도한다.

나와 만난 이들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친구, 게임중독에 걸린 부모와 함께 살며 가상세계에 빠져있는 친구, 오랜 외로움과 분노로 요괴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 친구, 사이버에 빠져 깨어진 가정 등이다. 나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과 만남을 시작한다. 나는 그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길 원했다. 그래서 빠른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변화에 초점을 맞출수록 조금하고, 불안해졌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변화가 아닌 그들의 삶의 경험에, 증상이 아닌 아픔에 주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아픔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마음의 닫힌 방문을 하나씩 열 때 우린 느리지만, 조금씩 함께 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부모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고, 고통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발걸음을 발견한다. 회복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새롭게 쓰여질 때 일어난다고 믿는다.

나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기독교 상담사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친구들을 돌보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 종종 비용의 부담과 사회적 시선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다. 목회자 자녀와 가족들, 부모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지로 떠나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비영리 상담 시설을 꿈꾼다. 믿음의 지체들을 돕는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송이



서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치료사이다.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성결대학원 심리치료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 아동 그룹 홈,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섬겼다. 현재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청소년을 만나 함께 울고 웃는 상담치료사로 재직 중이다. 성남 삼성성결교회에서 학생회 교사로 섬기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랑하는 삶

장재호 (크리스천 공동체 '모로뷰' 대표)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으로 전도를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 말로 당시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다. 흑사병이 돌았던 당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각 가정을 방문하며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삶으로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때처럼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인의 집단이라 비치는 교회의 이미지가 매일같이 더 추락하고 있다. 길을 걷다가도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말을 쉽게 듣게 되는데 내가 6년째 일하고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다. 운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원장님이 교회에 대한 원망과 답답함을 말씀하시다가 내 눈치를 보시고 멈추신다. 나를 통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했다. 마스크로 얼굴 반이 가려졌지만 아이들의 눈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눈을 맞추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언젠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각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아이들은 그걸 알아서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죠. 선생님은 끝까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예요.” 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본 일이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미지보다 내 안에 사랑의 왕이신 주님이 전해지길 기도하며 일을 한다.

7살 때부터 적었던 꿈이 있다. <인디애나 존스>를 보며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험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통해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맛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적어왔다.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단기선교 훈련을 기회로 처음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더 확신을 가졌다. 다음 해 같은 단체에서 4년간 선교 훈련을 받았고, 스무살 때부터는 YWAM(예수전도단)을 통해 20개국 이상을 다니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리는 꿈을 현실에서 이루며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지난 5년간 한국에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시야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언젠가 할 일이라며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또 다른 일터가 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과 나를 맡꼐와 기도로 키우신 어머니와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방이자 공동체이다. 이 일터는 나의 본업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이루라”, 혼자서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잠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신 마음이었다. 그래서 공동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서로 모르는 청년들을 모아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배웠던 것을 시도해보자는 생각으로 서울의 한 카페에 사람들을 모았다. “과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저 한주 모이고 한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순종이었다. 그렇게 매주의 순종은 5년간 지속되며 200번이 넘는 모임을 가지게 됐다.

‘모로뷰’(more of You), 대문자 Y를 써서 ‘하나님으로 더해지려는 모든 시도’라는 의미다. 매주 모여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를 통해’로 바꾸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교제의 장을 만들고 각자의 재능을 모아 사랑하는 일에 힘써보자는 의견이 모여 공간을 계약했고 주변에는 공방으로도 알려졌다. 우리의 목상이 담긴 글, 그림, 영상, 제품들을 만들어 빈민촌 아이들을 찾아 선물했고 또 그 모습을 그려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다시 향했다. 혼자 다니던 세상을 함께 다니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도 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며 도전하게 하신다.

누군가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라는 작년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다. 마스크를 만들고 응원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제작해 ‘마스크 스트랩’(mask strap)과 간식을 길거리에서 나누다 보니 우리는 모두 고백할 수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가득했던 감사한 한 해였다고.

“돈도 없는데 그런 꿈이나 꾸고 있냐.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한 목사님께 들었던 말이다. 어렸던 내게 상처이기도 했지만 덕분에 더 크게 눈을 뜰 수 있었다. 나에게 현실은 ‘현실적’이라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꿈 또한 이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다. 그렇게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현실로 도전하고 실험해왔다. 다친 어깨로 ‘쓸모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잡일만 하던 나의 군 생활은 보기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저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 끝은 ‘영웅’이라는 말을 들으며 마쳤다. 하나님께만 붙어있다면 놀라운 일을 하신다. 내게 현실 직시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사랑의 왕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매일 기대된다. **FAITH & LIFE**



글쓴이 장재호



크리스천 공동체 ‘모로뷰’(more of You) 대표이다.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꿈을 가지고 십 대 때부터 선교지에서 자랐고, 4년 간의 선교사 훈련과 YWAM(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 상담학교, 성경연구학교, 전도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역했다. 현재 크리스천 공동체 ‘모로뷰’를 설립해 5년째 대표로 섬기며, 청년들과 함께 한국과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 영어강사, 글, 그림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산본교회(예정통합) 청년이다.



시대의 양심인 본회퍼의 삶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



<Bonhoeffer: Agent of Grace> 2000, 에릭 킬 감독

영화가 제시하는 시대의 양심

영화 <본회퍼>는 신앙과 괴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본회퍼(1906-1945)는 신앙인, 목사, 교수의 역할을 한 몸에 지고 살아가야 했던 인물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려 했던 한 순결한 신앙을 보게 된다. 신앙인이라고 모두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 때로는 다수는 세상과 불의한 권력에 붙어서 야합하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죄인된 인간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인간의 보편적 양심, 신앙과 괴리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눅 17:10).

나치라는 시대 상황

본회퍼 목사는 나치시대(1933-1945)라는 난세를 살

았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민족적 열등감을 만회해 보고자 바이마르 공화국을 출범시켰으나 이 정치적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다. 국민들은 ‘위대한 독일 재건’을 일으킬 영웅을 원했다. 마침내 히틀러를 정점으로 한 나치제국이 세워졌다. 여기에 복종하고 야합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갔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을 ‘희생양’(Scape Goat)으로 무차별적 만행을 저지른다. 본회퍼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 신앙이 뿌리 깊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에서 어떻게 이런 정권이 탄생할 수 있단 말인가! 본회퍼의 해답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대학의 신학계는 이미 나치주의자들 손에 넘어가서 비복음적인 이론을 만들어 내었다. 본회퍼는 목회자 양성소에서 신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나치는 그마저도 폐쇄시켰다. 이럴수록 그의 양심적 행동은 점점 강해졌다.

내 양이 조국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 대학에서 강연하며, 미국 이민 온 독일 교인들을 위로했다.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이들이 귀국을 만류했다. 돌아가면 나치의 탄압을 받을 것이므로.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 양이 독일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독일로 돌아온 후 조국에서 나치의 감시를 받는 일상을 살게 된다. ‘목회자 긴급동맹’, ‘고백교회 운동’으로 반나치 활동을 계속하는 본회퍼. 그는 이미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다.

뜻하지 않은 만남, 그리고 약혼

전쟁이 깊어진 가운데 오래전 교인이었던 한 노부인을 방문했다.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이 모두 전사했다는 것. 나치는 조국을 위한 헌신이라고 미화했지만, 나치가 일으킨 무모한 전쟁에 끌려 나가 숨진 경우였다. 본회퍼는 나치의 전쟁이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사탄적 행위임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손녀가 외로이 지냈는데, 그녀는 예전에 본회퍼 목사가 입교 공부를 시킨 학생이었다. 이 과정에서 본회퍼는 갓 성인이 된 이 여인(마리아)과 약혼을 한다. 마리아는 본회퍼가 베를린에서 수감된 감옥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본회퍼가 체코 국경의 강제수용소로 이감된 이후 그곳까지 면회를 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였다. 패전을 인식한 히틀러는 결국 긴급명령을 내린다. 본회퍼에게 사형 집행이 행해졌다.

암살단 가입

목사가 어떻게 암살단에 가입할 수 있을까? 본회퍼는 처음에 가입을 거부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매부는 본회퍼에게 사진을 내보였다. 유대인 학살과 참상을 고발하는 증거였다.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당연히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 주저할 것이 없었다. 목사로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한 것은 직접 총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독일 기독교와 실상을 해외에 알리고 독일의 정통성이 나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었다. 그는 해외 지도자들과 긴밀히 이런 내용을 교류했다.

순례의 마지막 길

히틀러 암살을 시도한 '발키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히틀러는 광적으로 가담자들을 색출하게 했고, 결



국 본회퍼의 이름도 드러났다. 2차 세계대전은 1945년에 들어서자 독일군의 패전 기운이 짙었다. 히틀러와 나치당 지휘부는 패망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가져왔다. 히틀러는 무차별적 살인을 명령했다. 본회퍼 목사는 동지들과 베를린에서 중부 독일에 있던 플로센부르크 강제수용소로 이감되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했던 수용소에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히틀러의 특명을 집행하려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기 바로 한 달 전의 일이다. 이렇게 본회퍼는 묵묵히 자신의 신앙대로 주님 곁으로 갔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Von guten Mächten)〉는 본회퍼 목사가 옥중에서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의 시(詩)다. 우리는 가장 난폭한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심과 용기를 끝까지 놓지 않은 본회퍼 목사에게서 결연한 신앙 각오, 신앙과 삶의 일치를 배운다. 영화 〈본회퍼〉는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본회퍼).

FAITH & LIFE



글쓴이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 소장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고, 최근 은퇴할 때까지 안양대 기독교문화학 교수였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앙과 삶의 거리 좁히기 - 전인으로서의 예술 활동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고통받는 땅아, 너는 빛으로 일어서라〉전은 북한 인권의 실태를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뜻 있는 행사였다. 이 전시에는 ‘엠카라’(MQARA)라는 단체에 속한 김보경, 김윤경, 김지란, 윤나리, 이미진, 장성숙, 장윤희 등 7인의 작가가 참여했는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북한 주민의 자유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화폭에 나타냈다. 이 작가들은 “이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북한의 벽을 무너뜨리고, 북한이 자유의 땅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그림 1)



윤나리, 기다림, 2020

젊은 작가들의 발언은 최근 신앙과 괴리된 그리스도인의 범죄로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것과 오버랩되어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문제가 어디 이뿐이었는가? 세상을 향한 욕망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뒷전이 되어버렸고 일반인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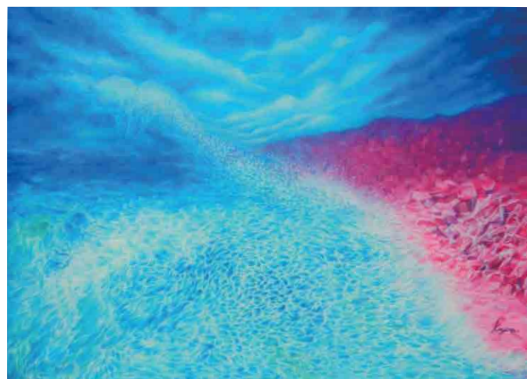
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은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양상은 예술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공연히 ‘오해’를 사거나 편견을 지닌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미술 담론을 주도하는 기관이나 매체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대학에서도, 저널에서도, 화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종교적인 작품이 언급될 때는 그것이 ‘스캔들’과 관련될 때뿐이다. 대학 강단에서조차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결부된 종교를 1년 내내 말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적어도 미술에서는 기독교 담론이 공공 영역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술사학자 제임스 엘킨스(James Elkins)는 “일상의 삶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밀접히 연관된 종교를 현대미술에서 언급할 수 있는 지점을 갖지 못한 것은 부조리하다”라고 했고, 존 버거(John Berger)는 “예술작품이 송두리째 거짓 종교성의 분위기에 봉인되어버렸다”고 일갈하였다. 신앙을 삶의 근간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기독교적 ‘문화의 돌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 신앙과 삶의 ‘무서운 괴리’가 침투해 있음을 방증한다. 신앙과 삶의 분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속적 관점으로 대체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공허한 이야기

처럼 들린다.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는 미래의 사람들
임을 망각할 때 세상의 옷이 더 어울리며 좋게 느껴지
는 셈이다. 팀 체스터(Tim Chester)가 말하였듯이 세
상과 같아질수록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적어질
따름이다. 세속주의를 거스르며 '문화명령'을 이행하
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 숱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린
다. 북한의 인권 문제부터 동성애 문제, 무신론자들과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협공, 창조 질서를 거스르
는 환경파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기아 문제와 낙
태죄 폐지, 세계 곳곳에서 저질러지는 악행 등등. 이
런 과제들과 씨름해야 하는 것은 문화적 회복의 과업
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책무
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러나 타락한 세
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는 자신의 현재 자리에서 기존의 구조들을 유지하며
망가진 것들을 고쳐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
다.(그림 2)



김지란, 모든 눈물은 씻겨지리라, 2020

M 국의 J 작가는 실력을 인정받는 전도유망한 작가이
다. 당국의 탄압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J 작

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일렬로 서 있는 군중같
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며 기도하
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는 인품과 실력 면에서 가장 닮
고 싶은 인물로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다. 얼
마 전 공권력을 동원해 지하교회를 급습, 집기를 몰수
하고 본당을 폐쇄하는가 하면 지방의 교회 목사 부부
에게 '국가 전복 혐의'를 뒤집어씌운 마당에 J 작가 역
시 정체성이 밝혀지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은 얼음판 위를 걷듯이 조
심스럽다. 개인의 신앙이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만났
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J 작
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우리는 J 작가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음을 삶으
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식의 기복신
앙에 안주하지 말고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길 잃은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본분을 망각
하지 말고 성실히 수행해야겠다. 하나님 나라는 그 백
성들의 변화된 삶과 교회를 통해 표현된다. 그런 점
에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
다. 특별히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국이
산산조각 났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
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
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
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인생의 궁극적 질문을 해 보았는가

박명룡 (청주서문교회 담임목사)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정글을 헤쳐가고 있었다. 한참 수풀을 헤치다가 축구공을 발견했다. “이 공이 왜 여기에 있지?”라며 궁금해하였다. 조금 더 가다가 큰 저택을 발견했다. 그 저택을 만든 길이나 건축을 위한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람의 발길을 닿지 않은 곳에 그렇게 큰 저택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 저택은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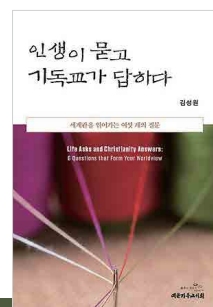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축구공보다, 저택보다 더 크고 복잡하다. 우주가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 “이 우주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우주를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질문해야 하는 문제들을 그저 무시하며 살고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근본 질문들을 무시하거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경우 영혼 없는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인생의 궁극적 물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되새겨 보아야 할 질문이다. 바로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답을 얻어가는 것

이 세계관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김성원 교수(서울신대)의 책,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2019)는 기독교 세계관 형성을 위한 최고의 교과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여섯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기독교적인 대답과 세상의 대답을 설명하고 있다. 즉, ‘최고의 현실적인 것’, ‘지식의 참된 기준’, ‘우주의 기원’, ‘인간의 정체성’, ‘윤리의 참된 기준’ 그리고 ‘시간과 죽음 문제’, 이러한 주제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두 가지 독특한 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여섯 개의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과 세속적 세계관의 해답을 살펴봄으로써 두 세계관을 비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은 결국 기독교 세계관의 탁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준다.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 근본주의나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복음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균형 있게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삼으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 구원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강조하는 장 칼뱅의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을 받아들인다. 게다가 17세기의 경건주의,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 운동의 전통,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의 성령 운동을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 김성원 / 대한기독교서회 / 2019



수용하여 폭넓은 복음주의 관점을 가지며, 매우 균형 잡힌 신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자는 1장에서 세계관을 정의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2장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으로 “최고의 현실은 하나님이다”라고 밝힌다. 하나님이 최고의 현실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대답으로서, 물질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자연주의적 해답이나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실존주의의 대답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인상적이다. 3장에는 “지식의 참된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참된 지식과 진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참된 지식에 대한 다른 대답으로서, 과학적 실증주의, 합리주의의 인식론, 칸트의 비판적 인식론,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감성적 주관주의는 참된 지식의 자격으로 부적합함을 밝혀준다. 4장에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말해 준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다른 대답으로서 빅뱅 이론과 다중우주론 등 다양한 대안을 살피며 그 한계를 설명하는 지식이 빛난다. 5장에는 “인간,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특별한 피조물임을 밝히며,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대안들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준다. 6장에는 “윤리의 참된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제시하며 성경적 근거를 설명한다. 다른 대안으로서, 칸트의 윤리, 공리주의, 관습주의, 실존주의, 포스트모던, 그리고 진화론적 윤리를 살피면서 문제점들을 밝힌다. 7장은 “시간과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주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순환적 시간관 등 다양한 이론들의 한계를 자세하고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김성원 교수의 〈인생이 묻고 기독교가 답하다〉는 포용적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엮어낸 역작이다. 저자의 균형 잡힌 시각이 철학과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어우러져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귀한 선물을 독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책은 한국인 최고의 기독교 세계관 저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AITH & LIFE**



글쓴이 박명룡

청주 서문교회(기성) 담임목사이다. 서울신학대학(B.A) 및 동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했고, 미국 탈봇신학대학원에서 ‘지성적 영성’으로 신학 석사(Th.M)와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 〈진짜 예수, 도울의 잘못된 성경관 바로잡기〉 등이 있다.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회사 교수)



이 책의 저자 이상민 박사는 국내에서 탁월한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94)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불문학 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수의 엘뤼 저서를 번역한 저자는 엘뤼의 저서들을 원어로 읽고 번역하고 연구함으로써, 국내에서 엘뤼에 대해 가장 정통한 이해와 정보를 습득한 일급 연구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엘뤼의 주요 저서들과 엘뤼 연구자들 혹은 엘뤼 지지자들의 연구서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면서, 엘뤼의 사상과 활동, 영향과 논쟁을 체계적으로 정리·소개한다. 엘뤼의 저서들이 국내에 상당수 번역되면서 엘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꾸준히 향상되어 왔지만, 엘뤼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위한 연구서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 책의 출판은 엘뤼의 '열혈 광팬' 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도 매우 반갑고 고마운 선물임이 분명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포함한 부록이 추가되어 있다. 제1부는 그리스도인이자 사회활동가로서 엘뤼의 생애, 그리고 신학과 사회학을 축으로 한 그의 사상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한다. 제2부는 엘뤼에게 가장 큰 명성과 비난을 동시에 안겨준 '기술'(technology)에 대한 그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제3부는 바르트와 키르케고르의 영향 속에 형성·발전된 엘뤼의 신학 사상의 여러 주제들을 분석적으로 소개한다. 이어서 제4부는 엘뤼의 신앙과 사상이 결합되어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된 프랑스 인격주의 운동의 역사와 엘뤼의 관계를 다룬 후, 기존의 혁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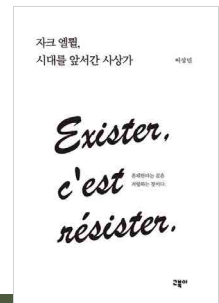
구별되는 '혁명적 기독교'에 대한 엘뤼의 생각도 검토한다. 끝으로, 제5부는 엘뤼의 사상이 프랑스와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영향을 끼쳤는지를 추적하면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난제들에 대한 엘뤼 사상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렇다면, 이 책의 주된 강조점은 무엇일까? 먼저, 이 책은 엘뤼 사상의 두 축인 신학과 사회학에 관심을 집중한다. 즉, 엘뤼가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통해 기술의 통제 하에 놓인 서구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분석할 과학적 도구를 확보했지만, 사회학의 근본적인 한계를 절실히 인지하면서 궁극적인 해법으로서 성경과 신학,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런 엘뤼 사상의 이중적 구조를 제시하는 결정적인 열쇠다.

만일 당신이 신학적 영역만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요소가 당신에게 부족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회 정치적 영역에만 단지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대답과 출구가 없는 상황에 끊임없이 부딪힐 것이다.(54)

둘째, 이 책은 기술과 현대사회 간의 비극적인 관계를 선구적으로 주목했던 엘뤼의 역사적·현재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소개한다. 20세기 동안 인류는 전대미문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했고, 그 발전은 세계화와 연결되어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다. 정치와 경

〈자크 엘뤼,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이상민 / 고북이 / 2020



제, 심지어 종교마저 이런 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엘뤼는 성경과 신학에 근거한 신학적·윤리적 해법을 제시했다. 한동안 그의 이런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지만, 21세기에 그의 예언자적 메시지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재조명되고, 그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와 4차 혁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적응하는 한국에서 엘뤼를 읽어야 할 이유도 자명해진다.

셋째, 엘뤼의 신학 사상에 대한 본서의 분석적 소개와 평가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물론, 전통 교리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부정하고 보편구원론을 지지하는 듯한 엘뤼의 주장은 순간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기도, 자유, 소망, 성서, 계시 등에 대한 엘뤼의 깊은 사색과 현대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신학자로서 그의 탁월함을 입증할 뿐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소중한 영적·신학적 선물이다. 이 책은 엘뤼의 이런 신학적 특징과 가치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한다.

반면,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먼저, 이 책에서 엘뤼의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저자 이상민 박사의 개인적 평가나 분석은 거의 들을 수 없다. 물론, 이 책을 구성하고 엘뤼의 글을 인용하며 학자들의 글을 소개하는 과정 자체가 저자의 통찰과 연구의 산물

이지만, 수많은 주제에 대한 엘뤼와 그의 비평가들의 주장에 대한 저자 자신의 평가와 개인적 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이 엘뤼의 사상과 한국 사회·교회 간의 상관관계, 혹은 적용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책 전반에서 독자들은 엘뤼의 생각을 접하면서 자동적으로 그의 생각과 한국 사회·교회 간의 상관관계 혹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가 이 문제를 보다 직접적·적극적으로 다루었다면 책에 대한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보다 고양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신자본주의의 광풍으로 인간의 가치마저 상품화되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또한 자본주의 속에 연착륙한 한국 교회가 믿음의 지배하에 굴종하는 것 같은 서글픈 상황에서, 자크 엘뤼의 생애와 사상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통찰과 목직한 죽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엘뤼의 말이 마음에서 깊이 울린다. FAITH & LIFE



 글쓴이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사 교수이며 백향나무교회 담임목사다. 서울대 종교학과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S. T. M.)에서 공부했고, 미국 드류대학교에서 미국종교사 전공으로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저서로 〈복음주의 리포트〉, 〈교회의 숲〉,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 등이 있다.

성경적 세계관 강의

양성만 (우석대 교양학부 철학 교수)



최용준 교수(한동대)의 <성경적 세계관 강의>(CUP, 2020)는 대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인 세계관 교재이다. 신앙인이자라면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기독교의 성경이 세계와 삶의 기본 열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내용과 소재, 구성 방식, 말소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추어져 있다.

세계관 : 세계관이 무엇인가? 저자는 여러 예를 들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세계)도 다르게 보인다는 점을 입증한다. 세계관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결정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왜 옳은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성경적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설명한다.

창조 :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었다고 가르친다. 세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디자인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피조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와 그의 신성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신 후에도 여전히 이 세계를 돌보신다.

타락 :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만연해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 그렇고 국가의 차원에서도 그렇다. 성경

은 이것이 타락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을 뿐 아니라 피조계도 변형·오염되었으며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타락 이후에도 세계는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것은 일반은총 때문이다. 이를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죄로 인해 창조 세계의 방향은 뒤틀렸지만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스스로 우상을 고안하여 섬긴다.

구속 : 인간의 모든 악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 구속의 다층적 의미를 저자는 ‘죄 사함’, ‘회복’, ‘화목’, ‘새로움’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명한다. 저자는 구속의 이 측면들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역사적 실례들을 들어 그 내용의 실질을 예증한다. 이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예언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이다. 이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긴장과 전쟁이 있다.

완성 : 저자는 로마서 11장 36장의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미래의 부분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 완성을 강조해서 다룬다. 저자는 요한계시록 21장 1~4

〈성경적 세계관 강의〉 최용준 / CUP / 2020



절을 중심으로 구속의 완성을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완성, 그 결과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이라는 네 주제로 나누어 이 내용을 소개한다. 저자는 성경 신학적인 방식으로 이 주제들을 풀어내감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완성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저자의 깊은 연구와 사유가 그의 음성에서 묻어난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얼마나 근원적이며 포괄적이고 완벽하며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소망하게 한다.

갈림길 : 성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풍성하게 체계적으로 친절하게 소개한 저자는 마지막에 독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만들어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서 지혜롭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책은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저자는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깊게 연구하고 이해한 바탕 위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 세계관에 관한 여러 도서를 섭렵하여 그 흐름을 꿰뚫고 적절하게 그 논의를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셋째로, 미국, 남아공,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의 저자의 연구와 목회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칫 딱딱하게 느껴

질 수 있는 개념들을 살갑게 설명하고 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비록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므로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관은 그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다. 이 사실은 이 개념이 어느 한 시대 교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유용한 개념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계관이 신앙의 모든 면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관론 펼 때는 이 점, 즉 이 개념을 사용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의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 면에서 최용준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 강의〉는 인생의 기로에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의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된다. **FAITH & LIFE**



✍ 글쓴이 양성만

우석대 교양학부 철학 교수이다. 고려대 철학과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참여했고, 고려대에서 서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이사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IVP, 공저)가 있고, 번역서 마이클 고헌(Michael Goheen)의 〈창조, 타락, 구속〉(IVP), 캘리 제임스 클락(Kelly James Clark)의 〈기독교 철학자들의 고백〉(살림) 등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바라보기 : 복음주의적 삶의 해설서

김영한 (숭실대 기독교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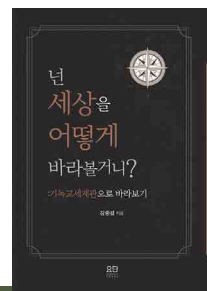
김종걸 교수의 세계관을 다룬 저서 <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거니?>(요단, 2020)이 발간된 것을 환영한다. 저자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지난 30여 년간 기독교철학을 가르쳐온 복음주의 학자이다. 이 저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우리 삶의 총체적 영역에 접근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는 성경적 가치관의 나침반이다.

저자는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바로 살기에 대한 지침서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책에서 우리 삶의 주요한 여섯 가지 분야, 즉 창조, 성(性), 교회, 생명, 사회적 이슈, 한국 사회 등을 통하여 복음주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처방을 제시한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관점’(perspective)에서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등의 모든 세속주의적 세계관들의 대안으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모델인 ‘창조-타락-구속’을 제시한 것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였다. 저자 역시 이 기본을 따르되 인간과 피조 세계의 회복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완성’(Consummation)을 추가한, 즉 ‘창조-타락-구속-완성(새 창조)’이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 다루는 주제는 창조에 대한 원리로서 창조 신앙이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다. 즉, 창조 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다. 2부는 동성에, 동성혼이 결국 양성평등 문제를 성평등 문제로 환원시키며, “성경의 가르침과 인류의 보편적 성 윤리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인 성적 관행”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 3부는 교회의 본질 이야기,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했던 가난한 자들, 오늘날에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시점에 노인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4부는 생명에 대한 고민들, 생명의 종교인데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이 사회에 어떤 목소리, 자살, 사형제도, 환경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경적 답을 제시한다. 5부에서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인 인권, 양극화, 다문화 사회와 이주자 문제 등을 다루었다. 6부는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한국 교회와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복음주의적 접근이 해답임을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교회, 공공성과 신학의 책임, 한국 교회의 반성,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학적인 대답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진지한 복음주의적 반성이 결국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변혁을 위한 단초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 실천이라는 에토스를 중요시한

〈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거니? :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기〉 김종걸 / 요단 / 2014



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한 애정과 충성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명을 받았다. 이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이다. 신앙과 삶의 분리,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와 파편화되어 있는 현실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위기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 토대로서, 1) 기독교적 인간관, 2) 기독교 학문관, 3) 기독교 과학기술관, 4) 기독교적 노동관을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공감과 협동을 이루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성이 더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절실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이 이 시대의 새 소망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인상적으로 확실히 제시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지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인격이 있으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은 방향하는 현대인 그리고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소망이요, 대답이 된다.” 또한 저자가 1장 결론에서 밝힌 “이상에 대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혁명(revolution)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개혁을 요구한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현재의 부조리

만 숙고하면 혁명 사상으로 넘어가게 됨으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 형성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 많은 이슈들과 지식들을 복음주의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면서 참된 세계관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젊은이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적 안목으로 살기 위한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영한



송실대 기독교학과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철학과 학부(B.A)를 졸업했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Ph.D) &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송실대 기독교학과 교수, 한국개혁신학회를 창립(1996)하고 회장을 역임했으며, 기독교학술원 원장(1998~), 샬롬나비(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개혁주의 이론실천학회) 시민운동을 창립하고 상임대표(2010~)로도 섬겨왔다. 저서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박영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송실대), 〈기독교 세계관〉(송실대) 등 30여 권이 있다.

세계관적 성경 읽기란 무엇인가?

최종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역사신학 교수)



저자 전성민은 2년 전 <세계관적 설교>(성서유니온, 2018)에서 창조, 일상, 공공의 복음을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이 지향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책, <세계관적 성경 읽기>(성서유니온, 2021)는 그 문제 의식을 확장하고 세분화하여 내용을 더 명료하게 다루고 있다.

<세계관적 성경 읽기>가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저작들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다루고 있는 논의들이 오늘 한국 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사뭇 낯설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 세계관 담론은 사상적이고 지성적인 논의의 틀을 갖추고 있다. 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조망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저자는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오늘의 컨텍스트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듯 되어 버린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자칫 기독교 세계관으로 틀 지우는 것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억압 이데올로기로 변형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저자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제시되는 주장들이 지나치게 경도된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곳곳에 내비치고 있

다. 한국 교회라는 컨텍스트의 특징을 반진화, 반이슬람, 반공, 반동성애로 진단하는 것은 서글프게도 부정하기 쉽지 않다.

저자는 과감히 그 틀을 벗어버리도록 제안한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지성과 이성적 추론을 통해 정답을 찾아가는(혹은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저자는 세상의 아픔에 몸으로, 마음으로 공감하고 공명할 필요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기독교 세계관은 중심을 지향하기보다 경계로 나아가고, 혐오를 넘어 환대를 구현하며,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야 함을 설명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 문제 의식은 컨텍스트에서 출발하지만,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이 지향할 공감성, 주변부성, 환대, 대화와 평화라는 키워드로 성경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방식을 솜씨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간 술하게 들어왔고 익숙하다고 여기던 텍스트가 새로운 호흡을 보여준다.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누구나 작금의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나 저자는

〈세계관적 성경 읽기〉 전성민 / 성서유니온 / 2021



이 컨텍스트에 대한 냉정한 분석 속에서도 우리가 컨텍스트를 품고 다시 돌아갈 텍스트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이 컨텍스트를 풀어나갈 실마리로 다시 텍스트 읽기로 우리를 초청한다. 그럴 때 그 텍스트는 이전과 다른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저자의 텍스트 읽기가 철저히 컨텍스트에 대한 천착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성경 읽기는 맹목적인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포로된 현실 속에서 다시 한 사람의 겸비한 구도자로 설 것을 촉구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만이나 교만을 벗고, 겸손히 타자를 환대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 두껍지 않은 분량에, 어렵지 않게 읽히는 가독성 높은 책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술술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은 아니다. 문장과 문단에 스며있는 밀도가 매우 높다. 첫 번째 읽을 때 보다 두 번째 읽을 때 책의 물성(物性)이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묵상집처럼 읽어야 할 책이다.

서둘러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매일 꾸준히

한 장씩 읽고 곰곰이 성찰할 때 우리 세계관이 재설정되는 경험을 하리라 믿는다. 오늘 교회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서글픈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냉소하지 않고 여전히 ‘평화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역설하는 저자의 굳은 신념이 활자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FAITH & LIFE**

✍ 글쓴이 최종원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역사신학 교수이다. 경희대학교에서 회계학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공부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중세 말 잉글랜드의 대학과 종교 담론에 관한 논문으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문주의의 시각에서 교회와 사회를 조망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 〈중세교회사 다시 읽기〉, 〈공의회 역사를 걷다〉 등이 있다.

혁명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치 행위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저자 후룬 판 프린스터르르(Groen van Prinsterer, 1801-1876)는 네덜란드의 영향력 있는 칼뱅주의 그리스도인 정치가이자 정치학자였다. 이 책은 1860년에 출판되었다. 저자가 '불신앙과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것이 1845-1846년이었으므로, 이 책은 '불신앙과 혁명'이 그의 안에서 명확한 사상으로 체계화된 지 15년 후에 쓰인 책이었다. 따라서 저자의 생각은 조금 더 다듬어졌고, 네덜란드의 정치 상황에서 그가 취한 전략적 대응들 역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책은 처음에 프랑스어로 쓰여졌다. 이는 프랑스, 스위스, 기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네덜란드에서의 반혁명 운동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당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공유된 반혁명적 사상이 소개된다. 또한 프린스터르르 사상에 영향을 끼친 유럽의 주요 학자들이 등장한다.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프린스터르르가 주도한 반혁명 운동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가진다. 프랑스 혁명으로 드러난 혁명의 원리에 대한 대안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는 이 혁명의 근본 원리는 무신론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정치적 대안은 유신론에 근거한 원리이다. 하지만 유신론의 범위는 너무 넓다. 19세기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주장하는 교파들의 의견도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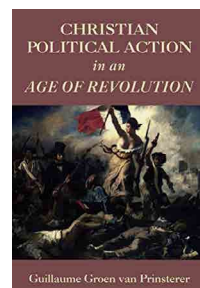
는 자신이 추구하는 유신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 '고백적', '정통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고백적'이라는 말은 '국가적' 교회에 대립한 개념이고, '정통적'이라는 말은 화란의 역사적 신앙인 '도르트 신조'(The Canons of Dort, 1619))에 근거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프린스터르르는 반혁명 운동의 원리와 혁명 원리의 구현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밝힌다. 그것은 다음 문장에서 명료하게 요약되었다. "본질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비견할 수 없이 가장 큰 역사적 사실이다. 즉 인간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교리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을 모든 진리의 원천이요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40쪽) 그는 〈불신앙과 혁명〉(Unbelief and Revolution)에서 프랑스 혁명과 그에 뒤이은 역사를 통해서 이 주장을 상세하게 고증하고 설명하였다.(<신앙과 삶> 1+2월호 서평 참조).

그는 혁명 정신이 가지는 정치 사회적 함의를 이렇게 요약했다. "자유 이름으로 우리는 방종을 도입했고, 질서를 되찾기 위해 자유를 희생했다."(106쪽). 이것이 그가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발견한 현상이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신성한 법을 거부하여서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한 자유는 민중에게 절대권을 부여했다. 이 민중의 절대권이 대의정치로 구체화 되자 이번에는 국

〈혁명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치 행위〉(Christian Political Action in an Age of Revolution)

흐론 판 프린스터르 / Lexham Press / 2018



가가 절대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혁명을 통해서 획득된 자유는 독재의 출현을 초래했고 결국 자유는 희생되었다.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혁명이 필요했고, 그것은 다시 자유를 희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프린스터르르는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빠지는 자기모순으로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형벌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이런저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기초하고 있는 원리의 문제이다. 프린스터르르는 혁명의 정신에 대응할 후보로서 유신론의 여러 가지 형태들, 곧 로마 카톨릭, 당시 네덜란드의 국가교회 등을 살펴보지만, 그것들이 혁명의 정신에 대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따라서 자신이 주도하는 반혁명 운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혁명과 달리 종교개혁은 사이비 권위를 무너뜨리고 참된 권위 곧 말씀과 성령의 권위를 세웠다. 이것을 근거로 종교개혁은 개인의 자유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근거 위에 확립함으로 참된 권리와 자유를 확보해 주었다. 동일한 원리로 종교개혁은 정부의 근거를 확립했다. 곧 정부 권력의 원리와 근거는 하나님의 법이다. 따라서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법의 집행이라는 원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권력이란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프린스터르르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개신교 정

신이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된 의미의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는 상원 의원이 되어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들을 모으고 이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정치인들로부터 정치와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교조적인 사람으로 매도되었다. 당시 네덜란드 정치가들의 생각이 오늘날의 생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프린스터르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밝힌다. 마지막 장에서, 이 원리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자신의 정치 활동을 보고하면서 그는 열매가 빈약한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이 책이 1860년에 집필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카이퍼를 통해서 자신의 이념이 네덜란드 정치의 주도 원리가 된 사실을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카이퍼의 성공은 프린스터르르가 지속적인 실패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로 내세웠던 주장이 정당했음을 증명해 준다. **FAITH & LIFE**



글쓴이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거짓과 속임의 역사>(드림북), <중생과 자기 부인>(드림북), <홍해에서 요단까지>(성의책방), <땅에 기록된 하늘의 법>(성의책방) 외 다수가 있다.

충주 새로운교회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

김도형 (충주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이 신앙공동체의 사역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목회 현장에서 발견하곤 한다. 충주 새로운교회의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가 꼭 여기에 해당한다. 시골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노년기 성도들이 대부분인 교회를 섬기면서, “꼭 필요한 사역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성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노년기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사역은 좀 낮은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세계관 사역이 주로 청년 학생들 또는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고령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제는 세계관 사역도 노년기 성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나 나이 들어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 속에서, 노년기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를 시작하였다.

• 충주 새로운 교회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 구조를 따라 3일 동안의 강의와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대부분 연로하기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커다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지난 삶과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왜 나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죄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복음을 통하여 나의 인생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또 함께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진행한다.

• 결과는 놀라웠다. 참가자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틀을 통해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서로 사이의 나눔이 깊어지고 마음에 담아왔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황혼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확장되도록 이끌고 있다. 수련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자신의 가치와 삶을 편지나 유서로 작성하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 자녀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한 줄의 글도 써보지 못했던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서툴게 써 내려간 편지를 서로 나누는 것 역시 특별한 감동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의 또 다른 목적이다. 물론 짧은 기간의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 프로그램만으로는 노년기 성도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그 프로그램이 노년기 그리스도인에게도 세계관의 변화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 충주 새로운교회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 이야기는 충주 변두리 시골교회의 사역 이야기이다. 시골교회 노년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상 온라인 모임은 익숙하지 않다. ‘코로나 19’ 상황이 어서 끝나고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가 다시 열려 또 다른 노년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충주 새로운교회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 소감문

인생의 황혼기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만나다



오래되고 나이든 교인들이 다수인 교회는 흔히 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현재 교인 대부분이 노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충주 새로운교회도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도형 담임목사님(새로운 교회)과 함께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반응하고 참여할지, 어르신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지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성도님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일상적인 교회의 모임에 서는 하지 못했던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영심히 배우고 나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각자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다양한 예를 통해 배우면서 세계관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배움을 통한 깨달음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존엄함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 이웃,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에 합당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춰야만 한다는 사실에도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에 참여했던 모든 다른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서로의 이야기 나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된 수련회이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도 앞으로의 '시니어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를 통해 각자 자신의 인생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나'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함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글쓰기 이상기

충주 새로운교회 장로



루터와 흑사병

주도홍 (前 백석대 역사신학 교수)

1527년 7월 루터가 사는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살기 위해 피난을 떠나야 했다. 이러한 피난은 성주들의 명령을 따라 행해졌기에 ‘기독교 사회’(Corpus Christianum)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쉽게 행동할 수 없어 영적 지도자 루터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에 대해 루터는 함께 고민하며, 본인 역시 질병으로 힘든 중에도 1527년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에 걸쳐 쉬엄쉬엄 글을 썼는데, “기꺼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 인지.”라는 글이었다.¹⁾ 루터의 이 글들은 신앙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사랑이 고난에로의 자유를 결단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루터가 서두에서 인용한 성경은 고전 1:10, 고후 13:11, 빌 2:2의 말씀이다. 그중 고후 13:11의 말씀은 “형제들아,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인데, 바로 앞 고후 13:10의 말씀 “주께서 너희를 넘여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와 함께 생각할 때 루터의 의도가 분명해진다. 여기서 루터가 강조한 단어는 겸손, 낮추심, 학습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향한 바른 태도를 두

가지로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반하는 경우, 즉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복음을 자신이 부인해야 경우인데, 이때는 마땅히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마 10:33; 10:28). 다음으로 루터는 영적 직분을 가진 설교자나 목회자가 흑사병 같은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라도 주의 명령을 잊지 말라고 강조한다. 샅꾼은 늑대가 달려들 때, 양들을 버리고 본인이 살기 위해 도망치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요한 10:12). 또한 루터는 마태복음 25:43의 “내가 병들었을 때 ……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주의 음성을 들려준다.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또는 이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생명을 위해 죽음(Tod)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불의가 아님을 많은 성경 구절을 가져와 제시한다.

루터는 에스겔 14:21을 들며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네 가지 중한 벌인 흑사병, 기근, 전쟁, 사나운 짐승을 열거한다.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이 내린 벌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루터는 묻는다. 정부는 여러 재단, 양로원, 구호시설, 병원 등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좋은 그리스도적 사랑을 넉넉히 실천해야 한다.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라면,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친히 이런 일을 감당할

1. Martin Luther, “Ob man vor dem Sterben fliehen moege”(1527), K. Bornkamm/ G. Ebeling(Hrsg.), *Martin Luthers Ausgewahlte Schriften*, Bd. II(Insel Verlag, 1983), 225-250.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마태 22:39),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 7:12)라는 말씀에 응하는 것이다. 이웃이 이러한 환난을 만났을 때 모른 채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²⁾ 루터의 태도는 그가 친히 흑사병 환자를 본인 집에 들어 치료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마귀는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공포,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정말 사악한 못된 마귀는 사람들을 끊임 없이 죽이고 살해하려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겁을 먹게 될 때, 마귀는 기뻐하며, 우리를 참혹하게 만들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안식과 평화를 앗아가, 결국 우리의 삶이 더러운 오물로 넘치게 만들어버린다!”³⁾

루터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모른 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이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능력의 말씀과 약속을 견고히 붙들어야 한다. 아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루터는 순전한 사랑의 섬김과 희생적 봉사에 강조점을 두었다. 루터에게 경건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Gottesdienst)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란 구체적으로 병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처럼 루터는 순전한 사랑의 섬김과 희생적 봉사에 강조점을 두었다. 루터는 어떻게 모든 흑사병과 모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는지 물으며, 그것은 병자를 위한 그 어떤 보호자도,

의사도 없이 방치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루터는 흑사병의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섬기고 치료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거기에서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된다고 가르친다.

루터는 ‘왼편 죄’와 ‘오른편 죄’로 나눈다. ‘왼편 죄’는 이웃을 돌보지 못한 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것, 즉 방치와 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 죄다. ‘오른편 죄’는 이웃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어떤 수고도, 치료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병이 퍼진 지역이나, 사람들을 멀리하지도 않은 채, 방탕하고 유희를 즐기면서 용감한 채하는 죄다. 루터에게 바른 신앙은 내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그에게 가서 돕는 것이다. 그리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도 이웃을 생각해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위해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조심스럽게 피해야 한다. 흑사병을 너무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버려둔 채 도망한다면, 또는 맹목적 만용으로 방역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했다. 루터는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설교하고, 영혼의 위로자로서 부름을 받아 옮겨 처신할 것을 소망했다. **FAITH & LIFE**



글쓴이 주도홍

前 백석대 역사신학 교수이자 부총장이다. 독일 보쿰대에서 공부(Dr. theol.)했고, 한국개혁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테오도르 운데어아익(Theodor Underreyck, 1635-1693) 연구의 권위자이며, 아시아신학연맹(AEA) 신학위원장(201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위원장(2016-)이기도 하다. 기독교 윤리학자 손봉호 박사, 역사신학자 김명혁 박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2. Martin Luther, “Ob man vor dem Sterben fliehen moege”(1527), 235.
3. Martin Luther, “Ob man vor dem Sterben fliehen moege”(1527), 235-236.

부전

父傳

자전

子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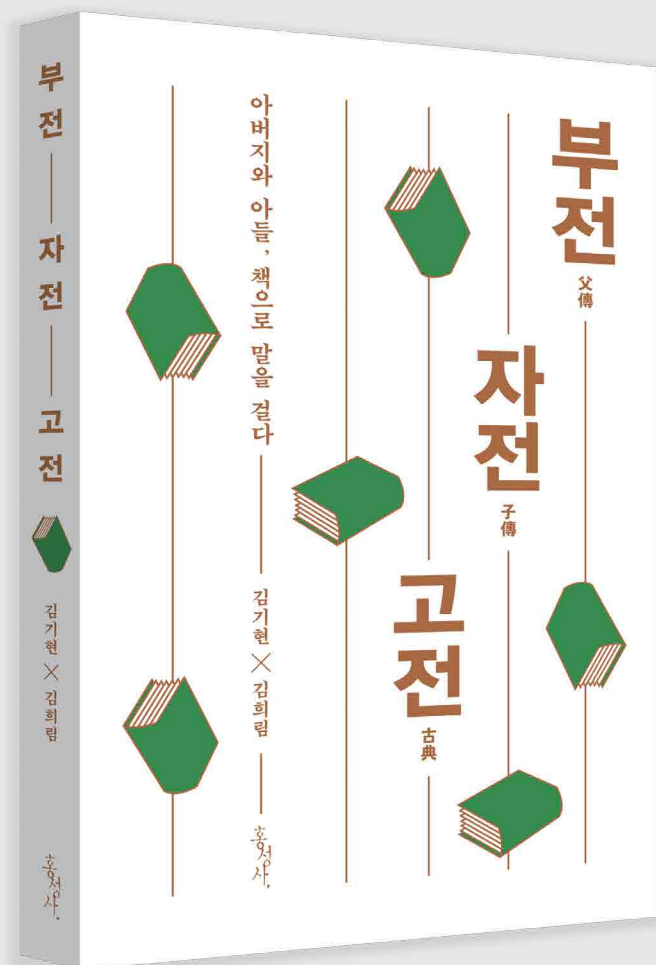
고전

古典

아버지와 아들, 책으로 말을 걸다

김기현 × 김희림

홍성사



김기현·김희림 지음 | A5변형 | 312쪽 | 16,000원

신학자 아버지와 철학도 아들이 고전을 벗 삼아 나눈 스무 통의 편지

굳이 기독교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애쓰지 않아 자연스럽다.

손봉호 |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이 책은 읽고 싶기도 하고 쓰고 싶기도 한 책이다.

김용규 | 《신》, 《철학 통조림》 저자

멋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진리를 향한 순례길의 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김기석 | 청파교회 목사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지지 않는 척하며 몇 권 사서 선물해야겠다.

김응교 | 시인, 숙명여대 교수

읽고 쓰는 것으로 친구처럼 소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밀도 높은 이야기에 꼭 동참해 보시기를.

서자선 | 광현교회 집사, 독서활동가

옥명호 | <복음과상황> 편집장, 김관성 | 행신침례교회 목사, 김지방 | 쿠키뉴스 대표,
조영민 | 나눔교회 목사, 장민혁 | 유튜브 채널 '오늘의 신학공부' 운영자 추천!!



2021년 제1차 실행위원회 개최

일시: 2021년 2월 9일(화) 오후 7시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안건: 2021년 임원 임명 건 심의, 2021년 사업 계획안 심의
 참석: 17명 실행위원 중 14명 출석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1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참석: 10명 이사 중 8명 출석
 안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사업) 심의, 2021년 임원 임명 심의, 신임 이사장 선출(신국원 이사),
 신임 이사 보선(양성만 교수), 명예 이사장 추대(손봉호 이사장)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1년 총회 개최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오후 8시 /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참석: 28명 대의원 중 24명 출석
 안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승인, 2021년 임원 승인, 2021년 사업 계획안 승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신임 이사장 및 신임 이사 서울 교육청 승인(2021.03.10.)

신임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신임 이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온라인)



주제: 뉴노멀, 기독교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1.05.22(토) 13: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장소: 사무국 Zoom 회의실, YouTube

주제강연: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양승훈(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신학교 교수)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MEOW 교수),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카이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최현일(샘병원 의사),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권오병(경희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이상민(번역가),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숭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김경민(전남대 교수, 전기공학),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한동대 교수, 국제어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Paul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온라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지도자 프로그램 : '2기 기본과정'과 '1기 강사과정'을 3월에 개강해서 1년 동안 진행한다.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 고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 3월부터 <나니아 연대기 - 새벽 출정호의 항해>를 개강하여 진행한다.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세계관' 강의 : 3월 개강해서 1학기 동안 진행 중이다.

- '부모교사 세계관 학교' : 3월부터 삼일교회, 성광교회, 성남제일교회에서 12주 과정으로 열린다.

- CTC 홈페이지 오픈 : CTC 교육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홍보를 부탁드립니다(www.ctcworld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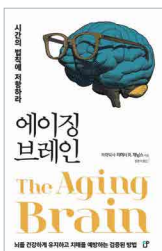
- 온라인 CTC 프로그램이나 참여 신청 문의 : CTC 사무국(010-2792-5691)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이다.

www.cupbooks.com * 문의 : cupmanse@gmail.com | 02-745-7231

- 신간 소개



〈에이징 브레인〉 티머시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368쪽 | 18,000원

과학연구에 근거한 뇌 건강의 원리와 실천 방법

나이 든다고 뇌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 활력 있고 건강한 뇌는 선택에 달렸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유년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뇌가 평생 가변적이기에 오늘의 바른 선택을 통해 뇌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뇌의 노화 원리를 개괄했을 뿐 아니라 최신 과학연구 결과를 실천 전략으로 전환해 기억력과 인지력의 향상을 돕는다.” 앨런 A. 앤더슨(의학박사, 브래튼 기억진료소 소장,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교수)

“실생활에서 의료와 생활방식의 변수를 관리해 뇌 건강과 노화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을 명쾌히 기술했다.” 마이클 라일스(정신과 의사, 저자, 강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1년 1월, 2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1월	2021년 2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1년 1월	2021년 2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270,000	1,3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000,000	4,640,000
	임원회비	280,000	10,000		기타급여	400,000	1,000,000
	일반회비	5,011,000	5,260,000		소계	4,400,000	5,640,000
	기관후원금	2,700,000	2,60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50,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412,596	416,953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56,610	152,727
	CTC후원금	70,000	20,000		우편료	9,610	41,620
	VIEW후원금	1,050,000	1,780,000		소모품비	0	58,43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424,000	525,500		식비	0	245,9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지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549,080	595,740
	기타	140,000	1,000		퇴직연금	242,697	202,270
					컴퓨터	0	0
	소계	9,945,000	11,566,500		교육비	0	0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회의비	0	0
	법인이자	0	0		회계용역비	55,000	385,000
	법인세환급금	0	0		여비교통비	0	0
	기타수입	0	0	연구지원비	사무비	156,110	141,000
	기금차입	400,000	0		기타(지급수수료)	120,054	125,970
	결산이자	0	0		소계	2,551,757	3,215,610
	예수금	264,830	303,880		연구회연구지원		
					도서구입비	0	0
					CTC후원금	69,175	69,175
	소계	664,830	303,880		VIEW후원금	1,230,870	2,089,242
학회	학회이사회비	130,000	170,000	출판(회지)	학술지원금	0	0
	학회행사수입	0	0		세계관지역지원금	0	0
	자료집판매	0	0		10선컨텐츠	0	0
	학회지판매	1,000,000	0		소계	1,300,045	2,158,417
	학술지심사비	440,000	840,000	기타	월드뷰구입비	0	0
	학술지계재료	100,000	0		인쇄비	0	1,146,960
	저작권료	0	0		발송비	253,000	1,456,220
	학회기타수입	0	0		소계	253,000	2,603,180
					임차보증금	0	0
	소계	1,670,000	1,010,000		CUP기금적립	400,000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849,340	920,345	학회	세금	52,360	19,850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15,000		잡비	0	17,700
	소계	849,340	935,345		소계	452,360	37,550
					학회강사료	0	0
당월 수입액		13,129,170	13,815,725	학회	학회장소사용료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인쇄비	1,780,416	890,500
전월 이월액		33,510,639	33,487,216	학회	학술지발송비	609,670	0
					학술지심사료	870,000	0
					학회조교비	0	0
					학회기타	0	0
당월 지출액		13,152,593	18,201,213	차월미수금		920,345	4,423,640
차월 이월액 (잔액)		33,487,216	29,101,728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5,000	122,816
				소계		935,345	4,546,456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1년 1월)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택, 지경순, 진성자, 최연무,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운,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승룡, 박해조, 범경철, 서유미,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유종선, 유준우, 이경미, 이길수, 이노운,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찬수,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김성권, 7천5백 강찬진, 박성태, 박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수,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세일, 고용재, 권경호, 권원평, 김경호,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노은,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정,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구, 김성민, 김성진, 김성호,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종일, 김자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창현,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남순우, 노순석,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미경,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준우,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서동국,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태상, 신상형,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희가, 안병열,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해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치상,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경, 이선복, 이선우,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윤홍, 이원도,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원,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영희, 전성구, 전항복, 정다은, 정동관, 정민식,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상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하,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일, 최성두, 최성호,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시영, 한혜실,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은,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연희, 강윤란, 고선숙, 기민석, 김대원, 김보경, 김세광, 김용식, 김인수, 김정국, 김정일, 김철수, 김태진, 박기모, 박상희, 박홍식, 송찬호, 송철호, 안선자, 엄준용,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장인석, 전병국, 장동섭, 정훈, 채기현, 한화진, 허정도, 3만 강진규, 김경민, 김동원, 김방용, 나용균,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해경, 오익석,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정진, 4만 우병훈, 5만 강다열,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박정식, 양승훈, 윤석찬, 윤완철,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한윤식, 6만 방은영, 석종준, 황영철, 7만 박문식, 최태연, 9만 배덕만, 10만 박영주, 손봉호, 손정엽, 신국원, 장수영, 장점영, 최현일 12만 김민철, 심상용, 홍승현, 24만 권오병,

계 7,065,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다문공동체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12만 영광복스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25만 서로서랑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분당우리교회,

계 2,870,000원

전체 9,935,000원

회원후원

(2021년 2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장재수, 장현정, 조성진, 주성택, 진성자, 최원길, 하태실, 5천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대용, 김상욱, 김승택, 김정명, 김정성,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승룡,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신종철, 유충열, 유종선, 유준우, 이경미, 이길수, 이노운,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찬수,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정진우,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박성태, 박선기, 백예은, 손화정, 이경우, 이윤택, 이은수, 전영식, 진영규, 1만 David Han, 강연정, 강연희,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권경호, 기민석, 권원평, 김경호,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준, 김남진, 김노은, 김대원, 김도형, 김동연, 김동주, 김막미, 김미하,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셋별, 김성민, 김성진, 김성호, 김세경,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용국,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준, 김정철, 김정호, 김종원, 김자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능안, 박동현,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준우,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백은수,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택, 송아영, 송은희, 송종철, 송철호, 송희영, 신상형, 신성만, 신현정, 신현주, 신희가, 안병열,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혜영, 양희석, 연해민, 염동환,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영준, 유은희, 유치상,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기명,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수, 이상순, 이상진, 이상환, 이선복, 이선우, 이성미, 이성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언구, 이연의, 이영미, 이영훈, 이요한, 이윤홍, 이원도,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기, 이정옥, 이정일, 이종철, 이주은, 이종섭, 이지원, 이진희, 이창훈, 이혜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재광, 임준택, 장경근, 장승기, 장승화, 장은해(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영희, 전성구, 전항복, 정다은, 정동관, 정민식, 정봉현, 정선경, 정영수, 정은희, 정이레,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상국,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하, 조이수, 조주영, 조창현, 조창희, 조철수,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최삼일, 최성두, 최성호, 최은정, 최종민, 최한빈,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시영, 한혜실, 한희수, 허선아, 허연, 허현, 홍구화, 홍대하, 홍요셉,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은,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정상섭, 2만 김보경, 김세광, 김용식, 김정국,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연우, 장인석, 정동섭, 정훈, 채기현, 황정진, 3만 강다열, 김경민, 김동원, 김방용, 나용균,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해경, 오익석,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문선, 최동진, 최영,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4만 문석운, 우병훈, 5만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윤석찬, 윤완철, 이상민, 이원실, 이형직, 전희경, 한윤식, 6만 강병덕, 박선자, 서미경, 석종준, 오해정, 정강화, 7만 최태연, 10만 박영주, 손정엽, 장수영, 장점영, 12만 김기홍, 김민철, 김영진, 김중호, 손수경, 안대룡, 윤덕희, 이대행, 이신영, 이재원, 이현지, 임진수, 최홍영, 50만 김선화, 120만 유재봉,

계 8,905,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 서로서랑교회, 일원교회, 6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도서관, 충신대학교도서관,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동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종교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남서울교회, 더세움교회, 삼일교회, 성덕교회, 흰돌교회, 30만 분당우리교회,

계 2,770,000원

전체 14,408,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명예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숭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 기타 (원)
후원방법	☐ 매월 CMS 자동이체		☐ 매월 직접 입금	☐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 25일 □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
|--------|-------------------------------------|--------------------------|----------|-------------------------------------|--------------------------|
| | ☒ |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금으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출입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효성에프엠에스 □ 이시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를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간의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성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 의해서도 강제로 양도될 수 없는 기본 권리임을 믿는다. 모든 불의한 폭력에 의한 인간 생명의 탄압, 시민의 양심 자유 박탈, 불법 구금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최근 미얀마 군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학살, 그리고 아웅산 수치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 지도자와 시민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폭압은 전 인류를 경악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이 모든 불의한 폭력에 반대하기에, 미얀마 군부에 의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미얀마 군부의 학살로 존귀한 생명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불의한 군부의 폭압과 학살과 불법 구금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와 정의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지지한다.
2. 미얀마 군부는 당장 무고한 다수 시민에 대한 불의한 폭압과 학살과 불법 구금을 멈추고, 아웅산 수치 등 정부 지도자와 모든 구금자를 석방하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2020년 11월 총선 결과를 인정하여 민간정부로 정권을 즉각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3.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의 그리스도인 지성인 공동체로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미얀마 시민들의 존엄한 생명 및 양심의 자유를 불의하게 짓밟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이 퇴진할 때까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지성인과 교회와 시민과 연대하여 탄압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할 것이다.

2021년 3월 19일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 **이사장** 신국원, **실행위원장** 박동열, **기독교학문연구회장** 박문식

박영주, 유재봉, 양성만, 양승훈, 조성표, 장수영, 정희영, 최태연, 강진구, 김대인, 김미영, 김예원, 김재완, 김지원, 김혜정, 권오병, 문준호, 박진규, 이상민, 이재희, 유경상, 윤현준, 장슬기, 최용준, 최현일, 김철수, 류현모, 오민용, 윤완철, 김보경, 김성원, 박원곤, 신응철, 이은실, 임춘택, 염동한, 현창기, 석종준, 전명희, 추태화, 황영철, 황영철,

김유니스, 안선자 (임원 및 대의원 일동)

뉴노멀, 기독교학문 어떻게 할 것인가?

— 행사일시

2021

5.22토

13:00-18:00

(대학원생 10:00-12:00)

온라인(Zoom & YouTube)

▶ 학문과 삶의 문제

▶ 기독교적 학문함의 실천적 함의

▶ 철학의 두 개념을 통해서 본 기독교 철학

손봉호 교수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양승훈 교수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교수

강영안 교수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

패널토의 사회 김철수 교수 조선대 교수

분과발표 대학원생, 공학, 교육학 I-II, 경제·경영, 사회과학 I-II, 신학 I-II, 의·약·간호학, 인문학 I-II, 자연과학, 학제간연구

발표논문신청안내

▶ 2021. 04. 09(금): 논문신청 마감

▶ 2021. 04. 21 (수): 초록 또는 요약본 마감

▶ 2021. 05. 03(월): 논문제출 마감

홈페이지: worldview.or.kr

이메일제출: gihakyun@daum.net

 신청·참가: bit.ly/kacs2021



NEW NORMAL

문의 02-3272-4967, gihakyun@daum.net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 910호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새로남교회